



II
화보편

한국연구재단 40주년사

1977 — 2017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화보편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화보편

Contents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화보편

PART 1. 한국연구재단, 40년을 비추다

- 008 주요 사업별 콘셉트 화보
- 032 한국연구재단 사람들
- 048 사진으로 보는 한국연구재단 40년

PART 2. 한국연구재단, 40년을 말하다

- 232 에피소드
- 242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포럼
- 260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 포럼
- 274 통계로 보는 40년

PART 3. 한국연구재단, 40년을 기록하다

- 282 한국연구재단의 의미 있는 기록
- 284 언론 속 한국연구재단 이야기
- 312 사진으로 보는 어제와 오늘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1

한국연구재단,
40년을 비추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별 콘셉트 화보
- 한국연구재단 사람들
- 사진으로 보는 한국연구재단 40년

본관

하구여구재단이 지원합니다.





한국연구재단

금과 영광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40

국가
재산
연구
지원
글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40

Korea University

KU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감사실



정책연구혁신센터 / 기획조정실 / 홍보실



1977



한국과학재단
현판식 ①
(1977. 5. 18.)



한국과학재단
현판식 ②
(1977. 5. 18.)



한국과학재단
청사 전경
(1977. 7. 1.)

1979



한국과학재단
연구 장학증서 수여식
(1979. 3. 29.)



한국과학재단
제6회 이사회
(1979. 3. 29.)



한국과학재단
73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
피셔(독일) 교수 초청 강연회
(1979. 4. 2.)

한국과학재단
- 일본학술진흥회 간
과학기술 양해각서 교환
(1979. 4. 24.)

1986



한국학술진흥재단
거리질서 캠페인
(1986.)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5주년 기념
(1986. 4. 6.)



한국학술진흥재단
추계체육행사
(1986. 10. 1.)

1987



한국학술진흥재단
1987년 사무식
(1987. 1. 4.)



한국학술진흥재단
독일 훈볼트 장학재단
H.PFEIFFER 사무총장 방문
(1987. 3. 26.)



한국학술진흥재단
제3회 국제 하계
한국학 단기연수
(1987. 7. 6.)

1988



한국학술진흥재단
1988년 사무식
(1988. 1. 4.)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제7주년 기념
(1988. 4. 6.)



한국과학재단
제29회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①
(1988. 7. 6.)



한국과학재단
제29회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②
(1988. 7. 6.)



한국학술진흥재단
추계 체육대회
(1988. 10. 20.)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3회 전국대학생
연구논문발표회
(1988. 11. 18.)

1989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제8주년 기념
(1989. 4. 6.)



한국과학재단
신축공사 현경
(1989. 5. 30.)



한국과학재단
연구환경설성사업단 현판식
및 다과회
(1989. 5. 30.)



한국과학재단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
(1989. 12. 14.)

1990



제2회 한국과학재단
과학상 시상식
(1990. 2. 10.)



한국과학재단
소련 과학원과 협력각서 교환
(1990. 2. 13.)



한국과학재단
청사준공식
(1990. 5. 18.)



한국과학재단
해외과학기술협력 각서 교환
(1990. 5. 18.)

한국과학재단
청사준공기념
해외과학기술협력기관과의
심포지엄
(1990. 5. 21.)



한국과학재단
21세기 한국민의 창의력 발현을 위한 포럼
(1990. 5. 24.)



한국과학재단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개소식
(1990. 7. 4.)



한국과학재단
국제수학올림피아드(중국북경)
한국대표단 발단식
(1990. 7. 6.)



한국과학재단
지역연구센터 개념 설정을
위한 정책설명회
(1990. 7. 20.)



한국과학재단
직장예비군 부대 발대식
(1990. 8. 22.)



한국과학재단
대덕연구단지 공동주택 기공식
(1990. 10. 30.)



한국학술진흥재단
워크숍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1990. 11. 15.)



1991



한국과학재단
한·일 과학협력 양해각서 교환
(1990. 12. 14.)



한국학술진흥재단
제3~4대 박일재 이사장 이임식
(1990. 12. 26.)



한국학술진흥재단
제5대 정연춘 이사장 취임식
(1990. 12. 28.)

한국과학재단
컴퓨터 교육실시
(1991. 3. 5.)



한국과학재단
제35회 학연산 연구교류회
(1991. 3. 21.)



한국과학재단
식목일행사
(1991.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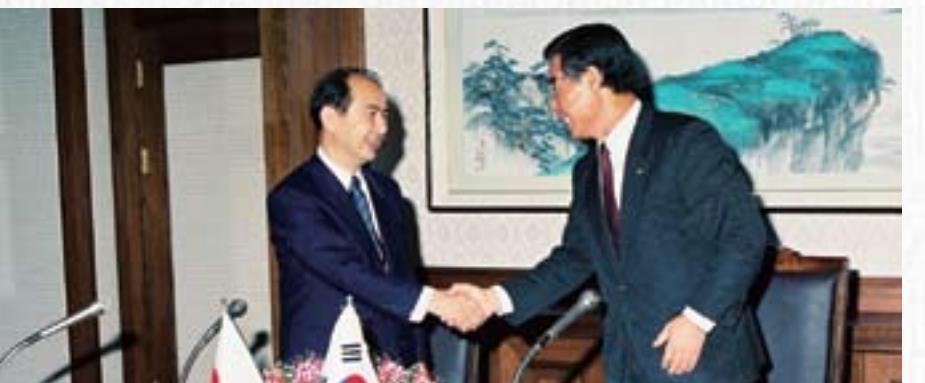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제10주년 기념
(1991. 4. 6.)





한국과학재단
한미 연차회의 및
국립과학재단과
연차회의 세미나
(1991.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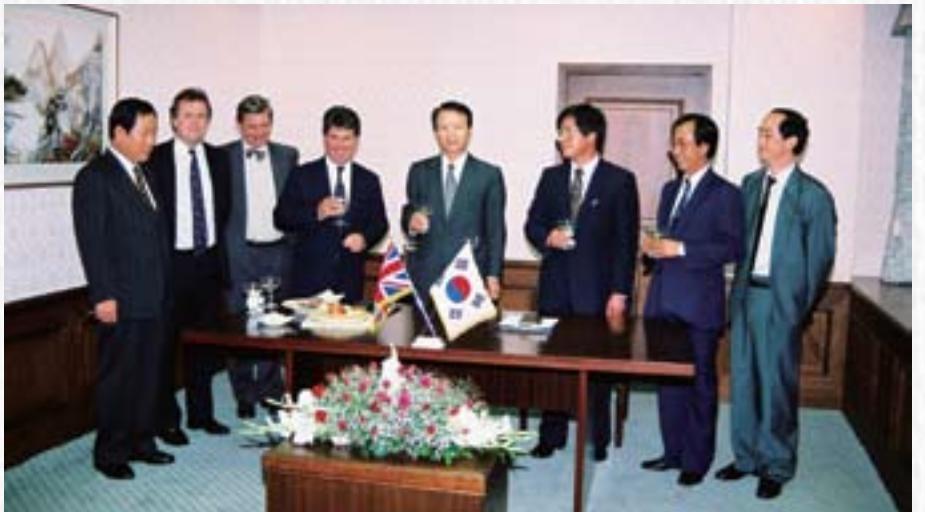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
한일 기초과학연구교류를
위한 위원회 연차 회의
(1991. 5. 23.)



한국과학재단
중국 CAS와의
과기협력각서 체결
(1991. 5. 28.)



한국과학재단
대덕과학문화센터 기공식
(1991. 8. 20.)



한국과학재단
영국문화원과 협력각서 체결
(1991. 9. 27.)



한국과학재단
직원산행(경북 봉화)
(1991. 10. 12.)



한국과학재단
미국립보건원의
연구관리제도에 관한 세미나
(1991. 10. 22.)

1992



한국과학재단
제3회 한국과학상 시상식
(1991. 11. 20.)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6회 전국대학생
연구논문발표회
(1991. 11. 21.)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보데이터구축과
유통체계 확립방안
(1991. 11. 27.)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자재 보내기
후원회비 전달식
(1992. 2. 25.)



한국과학재단
제1회 과학기술 공로연금
수혜자 발표회
(1992. 2. 25.)



한국과학재단
새봄맞이 정화운동
(1992. 3. 7.)



한국과학재단
92년 국제제약기술협회(ISPE)
(1992. 4. 10.)



한국과학재단
주전산기 및 LAN 기동식
(1992. 5. 14.)



한국과학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1992. 5. 15.)



한국과학재단
제2차 한·일
기초과학교류회 개최
(1992. 5. 27.)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대표단
귀국 흰영회
(1992. 7. 22.)

한국과학재단
연구소와 농촌 동간 자매결연
(1992. 9. 8.)



한국학술진흥재단
제6대 오덕렬 이사장 취임식
(1992. 9. 24.)



한국과학재단
대덕단지 체육공원 준공식
(1992. 10. 10.)



한국과학재단
제1회 한국과학상
(1992. 12. 9.)



1993

한국과학재단
제2회 물리올림피아드 겨울학교
(1993. 1. 5.)



한국과학재단-NSERC
협력각서 체결
(1993. 5. 12.)



한국과학재단
폴란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관 방문
(1993. 6. 30.)



한국과학재단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단 환영식
(1993. 7. 24.)



한국과학재단
대덕과학문화센터 준공
(1993. 10. 13.)



한국과학재단
여우회 모임
(1993. 8. 13.)



한국과학재단
직원 하계 수련회
(1993. 8. 27.)





한국과학재단
국정감사
(1993. 10. 14.)



한국과학재단
직원체육대회
(1993. 10. 30.)



한국과학재단
제4회 한국과학상 수상자 발표
(1993. 11. 23.)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8회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
(1993. 11. 23.)



한국과학재단
한영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위촉장 수여
(1993. 11. 25.)



한국과학재단
국토청결 운동
(1993. 11. 27.)

1994

한국과학재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과 대학의 역할
심포지엄
(1994. 1. 24.)



한국과학재단
과학논문 작성법 강좌
(1994. 1. 28.)



한국과학재단
전반기 해외 POST-DOC
연수자 설명회
(1994. 2. 15.)



한국과학재단
공대교수 산업현장 단기근무
프로그램 참가결과 발표교류회
(1994. 3. 10.)



한국과학재단
만방위 훈련
(1994. 3. 15.)



한국과학재단
생물 산업소재 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학술강연회
(1994. 4. 7.)



한국과학재단
직원 연수회
(1994. 4. 8.)



한국과학재단
광전자 연구센터 개소식
(1994. 4. 13.)





한국과학재단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정책협의회
(1994. 5. 20.)



한국과학재단
대민봉사
(1994. 6. 14.)



한국과학재단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훈영식 행사
(1994.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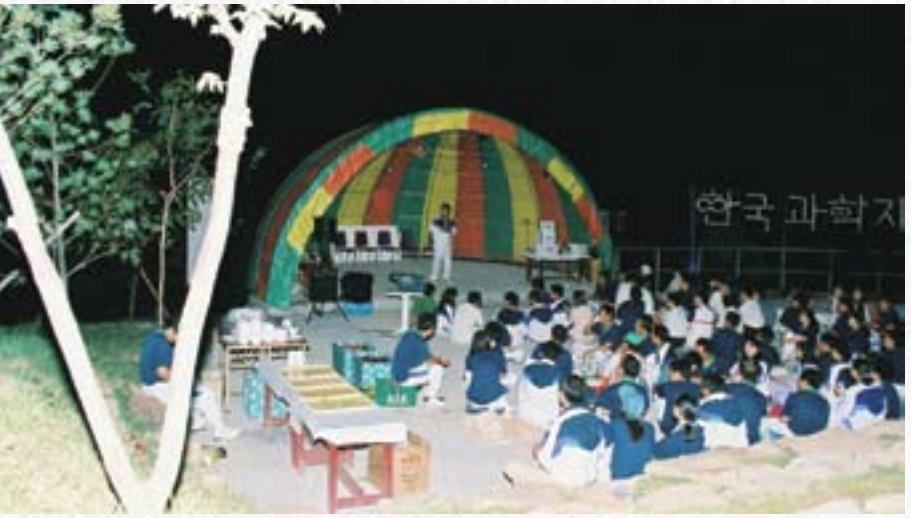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대전공청회
(1994. 7. 19.)



한국과학재단
여우회 보육원 방문
(1994. 8. 17.)



한국과학재단
94년 을자연습
(1994. 8. 25.)



한국과학재단
직원 하계 수련회
(1994. 9. 2.)



한국과학재단
여우회 비자회
(1994. 10. 26.)



한국과학재단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응원
(1994. 10. 28.)



한국과학재단
육림의 날 행사
(1994. 11. 5.)



한국과학재단
가을 전경
(1994. 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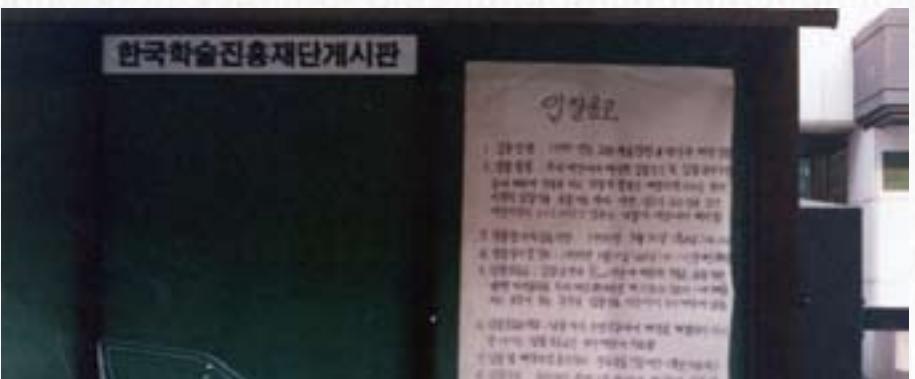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
겨울 전경
(1994. 12. 14.)

1995

한국과학재단
제1회 한국공학상 시상식
(1995. 2. 28.)



한국학술진흥재단
입찰공고
(1995. 3. 9.)



한국학술진흥재단
제8대 김종운 이사장 취임식
(1995. 3. 23.)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4주년 기념식
(1995. 4. 6.)



한국과학재단
창립18주년 기념식
(1995. 5. 17.)



한국과학재단
제1회 국산연구기기 전시회
(1995. 4. 18.)



한국과학재단
'95 춘계 전국대학
연구관리자 협의회 세미나
(1995. 4. 20.)



한국과학재단
호르몬 연구센터 개소식
(1995. 4. 26.)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을 위한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연구 공청회
(1995. 11. 24)



1996

한국과학재단
제5회 한국과학상 시상식
(1996. 1. 9.)



한국과학재단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 간담회
(1996. 3. 13.)



한국과학재단
제1차 한중 기초과학교류위원회
개최
(1996. 3. 25.)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제15주년 기념
(1996. 4. 6.)



한국과학재단
창립 19주년 기념
(1996. 5. 17.)



한국과학재단
한일 기초과학위원회
종합심포지엄
(1996. 5. 27.)



한국학술진흥재단
ARC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1996. 6. 12.)



한국학술진흥재단
시드니대학 PACKS 회의
(1996. 6. 27.)





한국과학재단
역대 전문경력인사 간담회
(1996. 7. 3.)



한국과학재단
APEC 세미나
(1996. 7. 12.)



제1회 KOSEF-DAAD
한독 대학원생 하계연수
(1996. 7. 15.)



한국과학재단
96년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과의 간담회
(1996. 8. 19.)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연구장려금 지급증서 수여식
(1996. 8. 28.)



한국학술진흥재단
동아시아와 일본의 전후 50년
(1996. 10. 4.)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개설
(1996. 10. 14.)



한국과학재단
96년 기관평가
(1996. 11. 20.)



1997



한국과학재단
제2회 한국과학상 수상자 발표
(1996. 12. 6.)



한국과학재단
한독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위촉식
(1996. 12. 26.)



한국학술진흥재단
첨단학술정보센터 개소식
(1996. 12. 27.)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위원회
(1997. 2. 1.)



한국과학재단
한미 과학협력센터 개소식
(1997. 2. 19.)



한국과학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제정 협약체결
(1997. 3. 17.)



한국과학재단
IMO-2000 협약식
(1997. 4. 2.)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제16주년 기념
(1997. 4. 6.)



한국과학재단
폴란드 기술조사팀과의
한-폴 과기협력회의
(1997. 4. 24.)



한국과학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1997. 5. 18.)



한국과학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1997. 6. 2.)

한국과학재단
'97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1997. 6. 27.)



한국과학재단
주한영국대사 방문
(1997. 8. 29.)



한국과학재단
출연(연) 이미지 제고 및
발전방안 발표회
(1997. 8. 29.)



한국과학재단
'97 지원 수련회
(1997. 9. 5.)





한국과학재단
'97 핵심과제 선정과제
검토회의
(1997. 9. 24.)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 한국학 진흥 유공자
훈장 전수
(1997. 10. 7.)



한국학술진흥재단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1997. 11. 7.)



한국과학재단
'97 국제정보과학올림피아드
발단식
(1997. 11. 8.)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 벨로우-맬라머드 학회
학술발표회
(1997. 11. 15.)



한국과학재단
승거돈 1달러를 찾습니다
모금운동
(1997. 11. 26.)



한국과학재단
중국과협 부주석 일행 재단 방문
(1997. 12. 10.)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청립 총회
(1997. 12. 11.)



1998



한국과학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월 사상식
(1998. 1. 22.)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상 시상식
(1998. 2. 12.)



한국과학재단
제200회 연구개발심의회 개최
(1998. 2. 24.)



한국과학재단 한혈
(1998. 2. 26.)

한국과학재단
강청희 과학기술부 장관
출연 연구기관 업무보고
(1998. 3. 10.)



한국과학재단
제3차 한중 기초과학교류위원회
개최
(1998. 4. 8.)



한국과학재단
제2회 과학기술사진전
(1998. 4. 14.)



한국학술진흥재단
제9대 박석무 이사장 취임식
(1998. 4. 20.)



한국과학재단
창립21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1998. 5. 16.)



한국과학재단
한미 지적 재산권 세미나
(1998. 6. 22.)



한국과학재단
을자연습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연습
(1998. 8. 21.)



한국과학재단
'98 KOSEF-DFG 연차회의
(1998. 8. 25.)



한국과학재단
제1회 사이버 의학학술대회
(1998. 10. 16.)



한국과학재단
아시안 사이언스 세미나 개최
(1998. 10. 20.)



한국과학재단
노동조합지부 현판식
(1998. 11. 19.)

1999



한국과학재단
만방위 비상훈련에 따른 교육훈련
(1999. 2. 25.)



한국과학재단
전문분과위원회 위원회 개최
(1999. 3. 9.)



한국과학재단
서정욱 과기부장관 재단 방문
(1999. 4. 16.)



한국과학재단
제25회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시상식 및 역대수상자 초청간담회
(1999. 4. 23.)

한국과학재단
창립22주년 기념행사
(1999. 5. 15.)



99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ICHO
귀국 훈영식 종합위
(1999. 7. 13.)



한국과학재단
한국-태국 KOSEF-NRCT
심포지움
(1999. 9. 9.)



1st Korea-Thailand Joint Workshop on
Comparison of Coastal Environment: Korea-Thailand
September 8-14, 1999, Haeundae Convention Center, Seoul
organized by Research Institute of Oceanology, KIST, Korea Maritime University, KOSEF, and NRCT

한국과학재단
전자원 계룡산 신행
(1999. 10. 22.)



2000

한국학술진흥재단
가을정기 신행
(1999. 10. 28.)



한국과학재단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발전
비전(안)에 대한 공청회
(1999. 11. 17.)



한국과학재단
1999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연구장려금 증서수여식
(1999. 12. 10.)



한국과학재단
단체협상 조인식
(1999. 12. 13.)



한국과학재단
제1회 연구개발 심의 위원회
개최
(2000. 1. 20.)



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 취임식
(2000. 2. 1.)



한국과학재단
해외 POST-DOC
연수자 시전설명회
(2000. 2. 18.)



한국과학재단
제7회 한국과학상 수상
기념
(2000. 3. 31.)





한국과학재단
전자원 체육행사(등산)
공주 마곡사
(2000. 4. 28.)



한국과학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오찬
(2000. 5. 17.)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급부여위원회
(2000. 5. 19.)



한국과학재단
노동조합 창립 3주년 기념행사
(2000. 6. 17.)



한국과학재단
미국 신진 과학도
학계 연수자 기념촬영
(2000. 6. 18.)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평가위원회
(2000. 6. 20.)



한국과학재단
2000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단식
(2000. 6. 22.)



한국학술진흥재단
남북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회의
(2000. 6. 25.)

2001



한국과학재단- 영국문화원
협력각서 체결
(2000. 8. 24.)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증서수여식
(2000. 9. 29.)



한국과학재단
추계 체육대회
(2000. 11. 4.)

한국과학재단
출연(연)의 기능정립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2001. 6. 15.)



한국과학재단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 방문
(2001. 3. 30.)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2001. 4. 6.)



한국과학재단
제12~13대 김정덕 이사장 취임식
(2001. 4. 17.)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경
(2001. 8. 27.)



한국과학재단
제1회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2001. 9. 21.)



한국과학재단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공동주관 협약 체결식
(2001. 9. 26.)



한국과학재단
한-프랑스 ARIEC
대표단과의 과학기술 협력 세미나
(2001. 10. 8.)



한국과학재단
제1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 개최
(2001. 12. 27.)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 기본계획 10대부분별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01. 10. 23.)



한국과학재단
연찬회
(2001. 11. 30.)



2002

한국과학재단
2002년도 신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2002. 1. 18.)



한국과학재단
제8회 한국 과학상
젊은 과학자상 수상
(2002. 3. 4.)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정면배 축구대회
(2002. 3. 16.)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자 지위향상 및
청소년 과학기술분야
진출유도를 위한 토론회
(2002. 3. 26.)



한국과학재단
2002년 기관평가
(2002. 4. 1.)



한국과학재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4. 15.)



한국과학재단
2002년 우수연구성과 30선
인증식
(2002. 4. 24.)



한국과학재단
창립 25주년 기념 VISION 선포식
(2002. 5. 16.)





한국과학재단
창립 25주년 기념식
(2002. 5. 18.)



한국과학재단
제2회 청소년 물리공동
탐구 토론회
(2002. 8. 8.)



한국과학재단
한–독 하계 연수 수료식
(2002. 8. 30.)



한국과학재단
스페인대사방문
(2002. 10. 14.)



한국과학재단
제278회 학연산 연구교류회
(2002. 11. 28.)



한국과학재단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
(2002. 12. 20.)

2003

한국과학재단
대전충북, 충남 민에게 듣는다
(노무현 대통령 간담회)
(2003. 2. 5.)



한국과학재단
제5회 공학상 시상식 개최
(2003. 2. 17.)



한국과학재단
해외 현지 연구지원사업 설명회
(2003. 4. 30.)



한국과학재단
창립26주년 기념식
(2003. 5. 18.)



한국과학재단
2003년도 직원 수련회
(2003. 7. 4.)



한국과학재단
해외 POST-DOC
연수 사전 설명회
(2003.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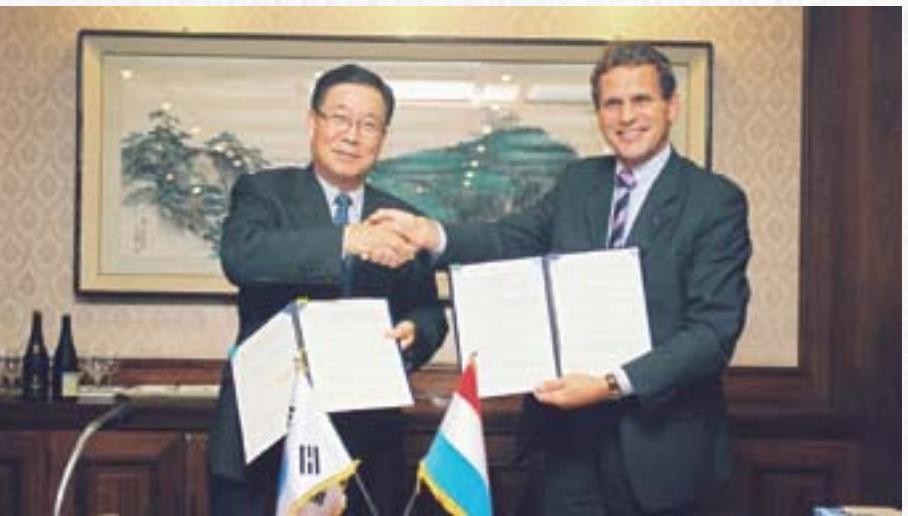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
일본 JSPS 이사장 재단 방문
(2003. 9. 3.)



한국과학재단
캐나다 대사 방문
(2003. 9. 25.)



2004



한국과학재단
네덜란드 대사 방문
NWO 각서 체결
(2003. 10. 14.)



한국과학재단
제1회 과학교사상 시상식
(2003. 12. 15.)



한국학술진흥재단
한마음 한가족 송년의 밤
(2003. 12. 30.)

한국과학재단
엘리베이터 컷팅 준공식
(2004. 1. 2.)



한국과학재단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방문
(2004. 2. 20.)



한국과학재단
여직원 휴게실
(2004. 2. 2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 장학증서 수여식
(2004. 3. 26.)





한국과학재단
제14대 권오갑 이사장 취임식
(2004. 4. 20.)



한국과학재단
춘계체육행사
(2004. 4. 30.)



한국과학재단
창립 27주년 기념식
(2004. 5. 18.)



한국과학재단
노동조합 창립 7주년 및
제5대 집행부 출범식
(2004. 6. 14.)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개발투자의
성과분석 세미나
(2004. 8. 25.)



한국과학재단(KOSEF)
- 미국과학재단(NSF) 심포지엄
(2004. 10. 19.)



한국과학재단
노사협의회
(2004. 11. 30.)



한국학술진흥재단
승년의 밤
(2004. 12. 30.)



2005

한국과학재단
KISTEP 사업인수
(2005. 1. 25.)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05. 2. 25.)



한국과학재단
경영업무혁신 워크숍
(2005. 4. 14.)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구성 협약식
(2005. 5. 12.)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도CSSR 협정체결
(2005. 5. 26.)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2005. 5. 31.)



한국학술진흥재단
통합 연구인력 협정체결
(2005. 6. 16.)



한국학술진흥재단
KCI시연회
(2005. 6. 16.)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초청 간담회
(2005. 6. 28.)



한국학술진흥재단
체육행사(경원대)
(2005. 6. 29.)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발전 대토론회
(2005. 7. 27.)



한국과학재단
을자연습
(2005. 8. 23.)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자문 이사장 이임식
(2005. 8. 26.)



한국과학재단
혁신사례발표회
(2005. 10. 20.)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성과50선 인증식
(2005. 10. 28.)



2006



한국과학재단
2005 일본연수특별프로그램
사전설명회
(2005. 11. 17.)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2대 허상만 이사장 취임식
(2005. 12. 2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등대장학금 수여식
(2005. 12. 29.)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상 시상식
(2006. 1. 6.)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소장 협의회 개최
(2006. 2. 25.)

한국과학재단
2006 청렴의식혁신을 위한
연구현장방문교육
(2006. 3. 30.)



한국과학재단
제2차 혁신지문위원회
(2006. 3. 31.)





한국과학재단
창의적연구 성과전시회
(2006. 4. 14.)



한국과학재단
2006 원자력체험전
(2006. 4. 20.)



한국학술진흥재단
춘계 체육대회
(2006. 5. 4.)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발전 심포지엄
(2006. 5. 9.)

한국과학재단-특허청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
(2006. 5. 11.)



제9회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
(2006. 5. 17.)



한국과학재단
햇빛보기 행사
(2006. 5. 20.)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식
(2006. 6. 15.)





한국과학재단
2006 국가지정연구실
연구성과전시회
(2006. 7. 6.)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분과위원회
(2006. 7. 20.)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 연구설명회
(2006. 7. 25.)



한국과학재단
제3회 우주포럼 우주천문
학술발표회
(2006. 7. 27.)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 현판식
(2006. 8. 1.)



한국학술진흥재단
명자번역지원제도 개선회의
(2006. 8. 2.)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서별 BSC팀별 발표 및 공유회
(2006. 8. 17.)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년 을지훈련
사이버테러 대응 관제센터
(2006. 8. 18.)



한국학술진흥재단
ESRC(영국)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6.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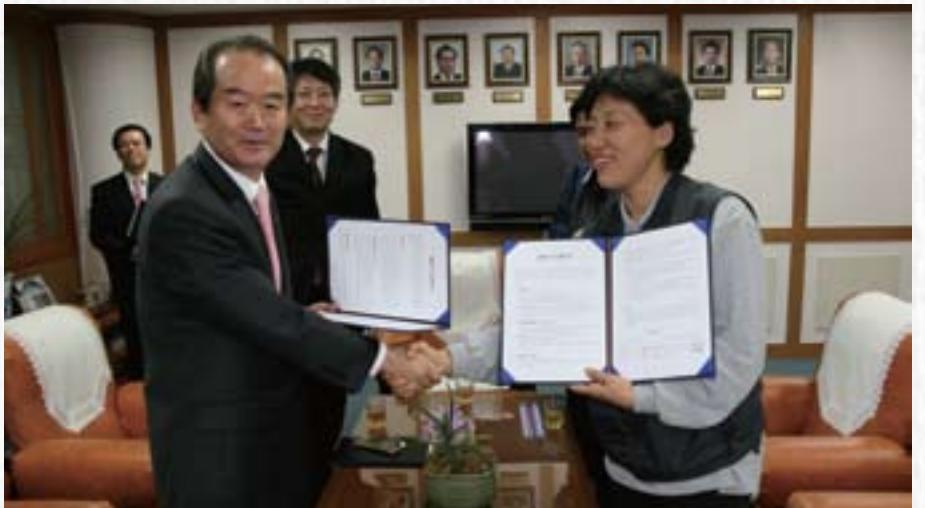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주간 개회식
(2006. 9. 26.)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년
윤리경영 선포식
(2006. 10. 2.)



한국과학재단
2006 국가지정연구실연구성과
국립과학관 특별전
(2006. 10. 3.)



한국학술진흥재단
노사임금협상 타결
(2006. 11. 1.)



한국학술진흥재단
BNC전문위원 임명식
(2006. 11.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책 심포지엄
(2006. 11. 28.)

2007



한국학술진흥재단
연못 통수식
(2006. 12. 12.)



한국학술진흥재단
남북학술교류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세미나
(2006. 12. 20.)



한국과학재단
국립해양과학관 출범식 및 기념행사 시상식
(2006. 12. 28.)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계획수립 위한 연구자 간담회
(2007. 1. 18.)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보화 발전방향 공유미팅
(2007. 1. 23.)



한국학술진흥재단
커넥트코리아사업 활성화와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워크숍
(2007. 1. 24.)



한국학술진흥재단
인적자원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MOU 체결식
(2007. 1. 30.)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입지원 교육
(2007. 2. 1.)



한국과학재단
2007년 전문경력인사
오리엔테이션
(2007. 2. 6.)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연구업적통합정보
구축 설명회
(2007. 2. 21.)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 프로그램관리자(PM)
연수회
(2007. 2. 23.)



한국학술진흥재단
경영평가실사
(2007. 3. 22.)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26주년 행사
(2007. 4. 5.)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원봉사단 농촌 방문
(2007. 4. 24.)



한국과학재단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2007. 5. 15.)



한국과학재단
창립30주년 기념식
(2007. 5. 17.)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진흥사업설명회
(2007. 5. 21.)



한국과학재단
제15대 최석식 이사장 취임식
(2007. 5. 22.)



한국학술진흥재단
3차 자식재산 경영세미나
(2007. 5. 31.)

한국과학재단
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2007. 6. 7.)



한국학술진흥재단
제5회 학술정책포럼
(2007. 6. 18.)



한국학술진흥재단
누리사업 홍보대사 위촉식
(2007. 6. 27.)



한국과학재단
2007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2007. 6. 29.)



한국과학재단
제2회 혁신토론회
(2007. 7. 9.)



한국과학재단
2007년 서비스 혁신 연찬회
(2007. 7. 12.)



한국과학재단
제2회 우주개발 진흥전략
심포지엄
(2007. 7. 20.)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연구업적 통합정보 연계를
위한 협정 체결 및 설명회
(2007. 7. 24.)



한국과학재단
제3차 우주개발
진흥전략심포지엄
(2007. 9. 7.)



한국과학재단-연강재단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해외연수 후원 업무협약 조인식
(2007. 7. 27.)





한국과학재단
자기업무 Jump up 경진대회
(2007. 9. 17.)



한국과학재단
30주년 사사
(2007. 10. 22.)



한국과학재단
이사장배 풋살대회
(2007. 10. 31.)



한국과학재단
제1회 미래전략포럼
(2007. 11. 8.)



한국과학재단
기름유출 방지활동
- 학암포 해수욕장
(2007. 12. 13.)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2007. 12. 28.)

2008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상 시상식
(2008. 2. 11.)



한국과학재단
제1회 KOSEF 아카데미
(2008. 2. 22.)



한국과학재단
NtUss Forum 2008
(2008. 3. 18.)



한국과학재단
봉사단
(2008. 4. 8.)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 출자사업 발전정책
심포지엄
(2008. 5. 8.)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설립 공청회
(2008. 5. 29.)



한국과학재단
국가R&D 전문평가동
건설공사 착공식
(2008. 6. 19.)



한국학술진흥재단
제2회 2008 연구윤리포럼
(2008. 6. 26.)





한국과학재단
교과부 BT R&D 효율화 공청회
(2008. 7. 18.)



한국과학재단
ISO 9001 인증식
(2008. 7. 25.)



한국과학재단
제7기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
출범식 및 원자력 자식워크숍
(2008. 8. 25.)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회 아시아인문학자대회
(2008. 10. 6.)

한국과학재단
제16회 일본연수 특별프로그램
オリエン테이션
(2008. 10. 9.)



한국과학재단
2008년도 기초 연구사업
신규연구센터 지정서 수여식
(2008. 10. 28.)



한국과학재단
2008 프론티어연구성과대전
(2008. 12. 11.)



한국과학재단
제1회 국민과 함께 나누는
연구성과
(2008. 12. 22.)

2009



한국과학재단
대전지역 금요일에 과학터치
(2009. 1. 9.)



한국과학재단
사업 체험수기공모전 시상식
(2009. 1. 22.)



한국과학재단
제5회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2009. 2. 10.)



한국과학재단
국가연구성과개발
실용화투자지원사업 설명회
(2009. 2. 26.)

한국과학재단
한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시상식
(2009. 3. 18.)



한국과학재단
신규선정 창의연구단
지정서 수여식
(2009. 5. 8.)



한국과학재단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정년 퇴임식
(2009. 5. 15.)



한국과학재단
해산이사회 개최
(2009. 6. 11.)

한국과학재단
해단식
(2009. 6. 22.)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9. 6. 25.)



한국연구재단
제대 박찬모 이사장 취임식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
(2009. 6. 26.)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이사회
(2009. 7. 28.)



한국연구재단
부산지역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2009. 8. 21.)



한국연구재단
GREENKOREA 2009
(기조강연)
(2009. 9. 9.)



한국연구재단
2009 미래융합기술 포럼
(2009. 9. 14.)



한국연구재단
2009 인문주간
시와 삶의 인문학마당
(2009. 9. 21.)



한국연구재단
제10회 국가R&D IP 포럼
(2009. 9. 24.)



한국연구재단
제1차 연구윤리 포럼
(2009. 9. 25.)



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정제 수여식
(2009. 9. 30.)



한국연구재단
제3차 산학협력총연합회
기관장 모임 개최
(2009. 10. 7.)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MOU 체결
(2009. 10. 7.)



한국연구재단
국제우주대회
Highlight Lecture
(2009. 10. 14.)



한국연구재단
기초·원천연구 선진화 포럼
(2009. 10. 15.)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티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
(2009. 10. 23.)



한국연구재단
제1회 임원 워크숍
(2009. 10.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총장간담회
(2009. 11. 3.)



한국연구재단
2009년 대표우수연구성과
인증식
(2009. 11. 4.)



한국연구재단
2009년 신학협력 엑스포
(2009. 11. 5.)



한국연구재단-특허청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
(2009. 11. 12.)



한국연구재단
WATCH 21 시상식
(2009. 11. 18.)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입주기념식
(2009. 11. 23.)



한국연구재단
과학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꿈나눔 2009 멘토링이
빛나는 밤
(2009. 11. 26.)





한국연구재단
비전선포식
(2009. 12. 15.)



한국연구재단
PM교육
(2009. 12. 15.)



한국연구재단
2009년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50인 인증식
(2009. 12. 23.)



한국연구재단 김사실
초대 최건모 김사 촉임식
(2009. 6. 26.)



한국연구재단 김사실
2009 제2차 연구윤리포럼
올바른 연구,
연구윤리 교육으로 열다
(2009. 12. 1.)

한국연구재단 김사실
임직원 소양 교육
(2009. 12. 29.)

2010

한국연구재단
사무식
(2010. 1. 4.)



한국연구재단-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워크숍
(2010. 1. 5.)



한국연구재단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 인력양성사업 설명회
(2010. 1. 19.)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티치
겨울방학과학캠프
(2010. 1. 26.)



한국연구재단
주한아프리카 대사관 초청 간담회
(2010. 1. 29.)



한국연구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시상식
(2010. 2. 9.)



한국연구재단
GRL사업 심포지엄
(2010. 2. 23.)



한국연구재단-서울시교육청
금요일에 과학티치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2010. 2. 26.)





한국연구재단
PM워크숍
(2010. 3. 2.)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상시상식
(2010. 3. 17.)



한국연구재단
연천회
(2010. 3. 25.)



한국연구재단
R&D IP 협의회 제1차 총회
(2010. 3. 25.)

한국연구재단
노사선진화 공동선언식
(2010. 3. 26.)



한국연구재단
제4회 창의적연구사업
성과전시회
(2010. 4. 2.)



한국연구재단
2010년 수목의 날 행사
및 대청소
(2010. 4. 5.)



한국연구재단
제2회 임원워크숍 개최
(2010. 4. 9.)





한국연구재단
국제자문위원회
(2010. 6. 24.)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1주년 기념식
(2010. 6. 25.)



한국연구재단
제5회 융합과학워크숍 개최
(2010. 7. 6.)



한국연구재단
2010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 설명회
초빙 활용 지원 사업
(2010. 7. 27.)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연구소장
의견수렴회
(2010. 8. 13.)



한국연구재단
을지연습 상황실
(2010. 8. 16.)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ISO-9001 인증 및
고객만족경영 설명회
(2010. 8. 17.)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티치 캠프 개최
(2010. 8. 18.)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선정자
설명회
(2010. 8. 26.)



한국연구재단
미래융합기술 포럼 개최
(2010. 9. 2.)



한국연구재단
제차 경영효율화위원회
(2010. 9. 9.)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환경지킴이 운동
(2010. 9. 29.)



한국연구재단
2010 국내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 세미나
(2010. 10. 5.)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분야 연구결과 발표
및 성과전시회
(2010. 10. 8.)



한국연구재단
2010년도 공학기반분야
학술교류회
(2010. 10. 14.)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터치
5개 지역 운영진 공동 워크숍
(2010. 10. 22.)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우수성과 인증식
(2010. 10. 26.)



한국연구재단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
(2010. 11. 4.)



한국연구재단
3개 노동조합 전체총회
(2010. 11. 25.)



한국연구재단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협력 약정서(MOU) 조인식
(2010. 11. 30.)



한국연구재단
노사협의회
(2010. 12. 24.)



한국연구재단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
(2010. 12. 1.)



한국연구재단
창의연구논문상 시상식
(2010. 12. 22.)



2011



한국연구재단 김사실
산하기관 감사방향 설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2010. 4. 27.)

한국연구재단
제2대 오세정 이사장 취임식
(2011. 1. 20.)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전략적 기획홍보 워크숍
(2011. 1. 28.)



한국연구재단
제1차 청렴도·고객만족도
제고TF회의
(2011. 2. 14.)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선진화 워크숍
(2011. 3. 18.)



한국연구재단
체력단련실 준공식
(2011. 3. 21.)



한국연구재단
제2차 R&D IP 협의회 포럼 개최
(2011. 3. 25.)



한국연구재단-중국
명문대학 포럼 개최
(2011. 4. 8.)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장 협의회
(2011. 4. 14.)



한국연구재단
PM간담회
(2011. 5. 2.)



한국연구재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1. 5. 3.)



한국연구재단
신입직원 멘토-멘티 간담회
(2011. 5. 9.)



한국연구재단
황토길 개통식
(2011. 5. 17.)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인문학진흥방안 및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설명회
(2011. 5. 26.)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창의적 연구 및
우수신진연구 지정서 수여식
(2011. 6. 7.)



한국연구재단
봉사단 창단식
(2011. 6. 13.)



한국연구재단
통합출범 2주년 기념
북카페 현판식
(2011. 6. 24.)

한국연구재단
통합출범 2주년 기념식
(2011. 6. 24.)



한국연구재단
미래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증서 수여식
(2011. 7. 6.)



한국연구재단 – IBK기업은행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2011. 7. 12.)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학술지평가
및 KCI 사업설명회
(2011. 7. 20.)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리 세미나
(2011. 8. 2.)



한국연구재단
WCU 국제콘퍼런스
(2011. 8. 4.)



한국연구재단
청렴옹부즈만 위촉장 수여식
및 회의
(2011. 8. 31.)



한국연구재단 알리기
(2011. 8. 31.)

한국연구재단
2011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연구관리 실무 설명회
(2011. 9. 7.)



한국연구재단
2011 인문주간 홍보대사 위촉식
(2011. 9. 8.)



한국연구재단
2011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전시회
(2011. 9. 22.)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연구책임자 간담회
(2011. 9. 23.)



한국연구재단
2011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
(2011. 11. 22.)





한국연구재단
사랑의 김장나누기
(2011. 11. 24.)



한국연구재단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2011. 11. 24.)



한국연구재단
2011년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연합 성과발표회
(2011. 12. 2.)



한국연구재단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2011. 12. 6.)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상 및
젊은과학자상 시상식
(2011. 12. 16.)



한국연구재단
창의연구논문상 시상식
(2011. 12. 22.)

2012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제2대 박정택 감사 취임식
(2011. 8. 1.)

한국연구재단
2012년 사무식
(2012. 1. 2.)



한국연구재단
2012년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워크숍
(2012. 1. 3.)



한국연구재단
201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설명회
(2012. 1. 16.)



한국연구재단
제3대 이승종 이사장 취임식
(2012. 1. 16.)



한국연구재단
2012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012. 1. 27.)



한국연구재단
제3회 글로벌연구실(GRL)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2. 2. 21.)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설명회
(2012. 3. 5.)



한국연구재단
과학 아이디어,
기원지기—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2012. 4. 2.)



한국연구재단
제67회 식목의 날 행사
(2012. 4. 5.)



한국연구재단
201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성과전시회
(2012. 4. 19.)



한국연구재단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2012. 4. 20.)



한국연구재단
—대전성심보육원
아동양육시설 성심원과의
자매결연 협약식
(2012. 5. 8.)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협력(MOU) 체결식
(2012. 5. 8.)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증서 수여식
(2012. 5. 18.)



한국연구재단
제1회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 과학교실
(2012. 5. 23.)



한국연구재단
한마음 체육대회
(2012. 5. 25.)



한국연구재단
NSF 총재 재단 방문
(2012. 6. 7.)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자정보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력(MOU) 체결
(2012. 6. 13.)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3주년 기념식
(2012. 6. 26.)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책임전문위원(CRB) 워크숍
(2012. 7. 10.)



한국연구재단
제4회 학회간 정책간담회
(2012. 7. 1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필통톡 개최
(2012. 8. 3.)



한국연구재단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ECSAC-Korea)
(ECSAC-Korea)
제2차 워크숍 개최
(2012. 8. 29.)



한국연구재단
2012 국내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2012. 8. 30.)



한국연구재단
노사공동 물품나눔행사 개최
(2012. 9. 5.)



한국연구재단
2012 기초연구 우수성과 인증식
및 전시회 개최
(2012. 9. 13.)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기금 조치평가
TF Kick-off 회의
(2012. 9. 20.)



한국연구재단
2012 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개최
(2012. 9. 27.)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 성과전시회 개최
(2012. 10. 23.)



한국연구재단
제3차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전문가포럼
전문가포럼 개최
(2012. 11. 20.)



한국연구재단-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과의
협약(MOU) 체결식
(2012. 11. 28.)



한국연구재단
제1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 개최
(2012. 11. 3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UST) 협약 체결
(2012. 12. 5.)



2013

한국연구재단 김사실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감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
(2012. 3. 20.)



한국연구재단
2013년 시무식 행사
대전 현충원 참배
(2013. 1. 2.)



한국연구재단
RP 위촉장 수여식
(2013. 1. 8.)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교과부
R&D · 인력양성사업
종합 설명회
(2013. 1. 21.)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평가자 인증식
(2013. 1. 31.)





한국연구재단
WCU–BK21 후속사업
관련 공청회
(2013. 3. 22.)



한국연구재단 청렴도 제고 선포식
(2013. 3. 25.)



한국연구재단–국회도서관
MOU 체결
(2013. 3. 27.)



한국연구재단
국가 과학기술성과 홍보전광판
점등식 행사(국립중앙과학관)
(2013. 4. 1.)

한국연구재단
2013 국내 학술지의
SCI 등재를 위한 특별 세미나
(2013. 4. 15.)



한국연구재단
정책도서관 개관식
(2013. 4. 25.)



한국연구재단
이시아태평양과학관협회
콘퍼런스 개막
ASPAC 2013 Conference
(2013. 5. 7.)



한국연구재단
2013년 노사화합 춘계체육행사
(2013. 5. 10.)



한국연구재단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한마당
(2013. 6. 3.)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4주년 기념식
및 정년퇴임식
(2013. 6. 25.)



한국연구재단
제4회 한국연구재단 정책자문회의
(2013. 7. 5.)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행복 교육기부 박람회
(2013. 7. 12.)



한국연구재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원 기입
(2013. 7. 19.)



한국연구재단
대덕특구 사거리 중앙과학관
홍보 전광판 영상
(2013. 9. 6.)



한국연구재단
산학연협력엑스포 개최
(2013. 10. 23.~25.)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2013년도 신규진입 연구책임자
연구비 집행정산 교육 2차
(2013. 11. 5.)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 행복장터
(2013. 11. 13.)



한국연구재단
제1회 임·직원 정보보안
콘테스트 시상식
(2013. 11. 19.)



한국연구재단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회 개최
(2013. 12. 16.)



한국연구재단
미래과학자 꿈돌 제막식 개최
(2013. 12. 19.)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박정택 감사 이임식
(2013. 6. 17.)

2014



한국연구재단
제4대 정민근 이사장 취임식
(2014. 1. 6.)



한국연구재단-국립환경과학원
에너지·환경융합분야
업무협력(MOU) 체결
(2014. 1. 22.)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우수평가자 인증식
(2014. 2. 7.)



한국연구재단
창조경제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KUSCO 기능 확대 및
발전 방안 간담회
(2014. 2. 18.)

한국연구재단
노동조합 임시총회 및
제2대 집행부 출범식
(201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4. 4. 9.)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협의회 종회
(2014. 4. 17.)



한국연구재단
2014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2014. 4. 29.)



한국연구재단(NRF)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MOU 체결
(2014. 5. 12.)



한국연구재단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줄기운 이동과학교실
(2014. 5. 13.)



한국연구재단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2014. 5. 14.)



한국연구재단
KIC 개소식
(2014. 5. 19.)

한국연구재단
제1회 BK21+ 포럼
(2014. 5. 21.)



한국연구재단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 심포지엄 및
전시회 개최
(2014. 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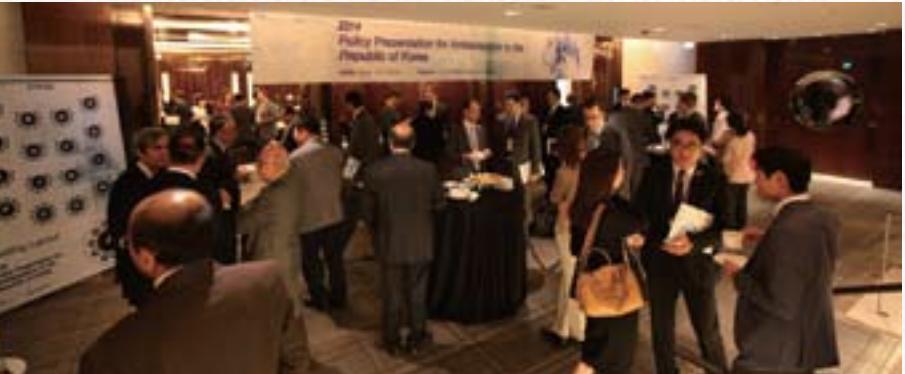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2014 제1회 교육 ODA
콘퍼런스 개최
(2014. 6. 24.)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5주년 기념식
(2014. 6. 25.)





한국연구재단
주한외교관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2014. 9. 1.)



한국연구재단
주식 명절 성심원 방문
(2014. 9. 2.)



한국연구재단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 봉사회
(2014. 9. 18.)



한국연구재단
노사간 정상화 이행협약서
(2014. 9. 25.)

한국연구재단
2014 신학협력 EXPO
(2014. 10. 1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신학협력 포럼
(2014. 10. 15.)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및 미래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신규 선정자 증서
수여식
(2014. 10. 29.)



한국연구재단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2014. 10. 30.)





한국연구재단(NRF)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업무 협약체결
(2014. 11. 4.)



한국연구재단
R&D 성과혁신대전
(2014. 11. 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4년 제4회 기관장회의
(2014. 11. 6.)



한국연구재단 음악회
(NRF 칸타빌레 콘서트)
(2014. 11. 18.)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제3대 문병룡 감사 취임식
(2014. 4. 14.)

2015

한국연구재단
미래부 최양희 장관
연구재단 방문
(2015. 1. 9.)



한국연구재단
제34회
테이블포투(Table for two)의 날
(2015. 1. 20.)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 인증식
(2015. 1. 23.)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협약 체결식
(2015. 2. 11.)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2015. 3. 24.)



한국연구재단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식
(2015. 4. 17.)



한국연구재단
2015년 연구재단
임직원 워크숍 개최
(2015. 5. 15.)



한국연구재단
2015년 대학·출연(연)의
국가 R&D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
(2015. 5. 26.)





한국연구재단
STRONG KOREA
창조포럼 2015 개최
(2015. 6. 10.)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6주년 기념식
(2015. 6. 25.)



한국연구재단
대학 [현장실습 운영지침] 관련
공청회 개최
(2015. 7. 15.)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
국제화분과 WoS
한국자율주천위원회
(2015. 7. 17.)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MOU 체결
(2015. 7. 23.)



한국연구재단-체코과학원
MOU 체결
(2015. 8. 11.)



제4회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실
(2015. 8. 31.)



한국연구재단
2015 제 1차 연구윤리포럼
(2015. 9. 17.)



한국연구재단
NBS방송국 개국
(2015. 10. 14.)



한국연구재단
한·중 인문학포럼
(2015. 10. 30.)



한국연구재단
직원과의 대화 학심대회 개최
(2015. 11. 3.)



한국연구재단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경진대회
(2015. 11. 27.)

한국연구재단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
(2015. 12. 2.)



한국연구재단
우수과학자포상 시상식
(2015. 12. 22.)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정년퇴임식
(2015년 12월 30일)



2016



한국연구재단
2015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감사협의회
(2015. 1. 27.)

한국연구재단
기록관 개관식
(2016. 1. 20.)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교육부·미래부)
권역별 통합 설명회 개최
(2016. 1. 28.)



한국연구재단
전임 국책연구본부장
초청 간담회
(2016. 2. 16.)



한국연구재단
소통·회합 임직원 음악회
(NBS방송 30회 기념 공개방송)
(2016. 2. 18.)





한국연구재단
대학 창의적 지식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공개 연차 평가
(2016. 3. 14.)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학술지평가 사업설명회
(2016. 3. 16.)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 사업 우수인력
표창 시상식
(2016. 3. 18.)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세계로 나아가다
(2016. 3. 23.)



한국연구재단
2016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2016. 3. 25.)



한국연구재단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업무협약 체결
(2016. 3. 28.)



한국연구재단
춘계 체육행사
(2016. 4. 26.)



한국연구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시상식
(상반기)
(2016. 5. 11.)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설명회
(2016. 5. 20.)



한국연구재단
2016 대학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서울 양재 AT센터)
(2016. 5. 24.)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노사 공동 전 직원
홀딩데이 개최
(2016. 5. 25.)



한국연구재단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정책토론회
(2016. 5. 31.)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 사업 우수사업단
표창 시상 및 사례 발표회
(2016. 6. 18.)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7주년 기념식
및 정년퇴임식
(2016. 6. 29.)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업무 협약식
(2016. 7. 15.)



한국연구재단
제5대 조무제 이사장 취임식
(2016. 8. 23.)





한국연구재단
2016 추석맞이 사회공헌활동
아담 방문
(2016. 9. 7.)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총괄위원회
(2016. 9. 7.)



한국연구재단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2016. 9. 26.)



한국연구재단
노벨과학상 정책토론회
(2016. 9. 27.)

한국연구재단

CORE 사업 출범식
(2016. 9. 29.)



2016년 9월 29일(목) 15:00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한국연구재단
NBS 자유학기제 개최
(2016. 10. 1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포럼
(2016. 10. 19.)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엑스포
(2016. 10. 20.)



한국연구재단
2016 인문주간 개막식
(2016. 10. 24.)



한국연구재단
미국 NEH 한국연구재단 방문
(2016. 10. 26.)



한국연구재단
세계인문학포럼 개회식
(2016. 10. 27.)



한국연구재단
세계인문학포럼
해외기관장 라운드테이블
(2016. 10. 29.)

한국연구재단
MOU 체결식
(2016. 11. 4.)



한국연구재단
2016 글로벌신학협력 포럼
(2016. 11. 9.)



한국연구재단
대전 충청 김사협의회
(2016. 11. 15.)



한국연구재단
인문 사회과학 우수성과교류회
(2016. 11. 24.)





한국연구재단
2016년 적정기술 국제 콘퍼런스
(2016. 12. 1.)



한국연구재단
2016년 한국연구재단 정책자문위원회
(2016. 12. 1.)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2016. 12. 26.)



한국연구재단
2016년 우수과학자포상 시상식
(2016. 12. 27.)



한국연구재단
ADIEU NRF 2016 허심탄회
(2016. 12. 28.)

2017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제4대 심순 감사 취임식
(2016. 5. 25.)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2016년 한국연구재단
종합감사 강평
(2016. 11. 11.)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대전총청감사협의회
(2016. 11. 15.)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2016년 청렴 우수사례 시상식
(2016. 12. 22.)

한국연구재단
현충원 참배
(2017. 1. 3.)



한국연구재단
기초공감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2017. 1. 10.)



한국연구재단
노사협약 체결식
(2017. 1. 11.)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차관 한국연구재단
PM 간담회
(2017. 1. 16.)



한국연구재단
2017년 국제협력센터
사업 설명회
(2017. 1. 19.)



한국연구재단
설맞이 아동복지시설
찾아가는 방문
(2017. 1. 24.)



한국연구재단
2017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설명회
(2017. 1. 25.)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티치 10주년
하스토리북 제작
(2017. 2. 11.)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티치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및 감사패 수여식
(2017. 2. 22.)



한국연구재단
2017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선정 인사 사업 설명회
(2017. 2. 2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우수평가자 인증식
(2017. 2. 23.)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2017. 2. 28.)



한국연구재단
2017 Korea-EU R&D Fair
(2017. 3. 29.)



한국연구재단
40주년 공모전
캐치프레이즈 시상식
(2017. 2. 28.)



한국연구재단
대학 창의적 자산 활용화
지원사업(BRIDGE) 공개 연차평가
(2017. 3. 15.)





한국연구재단
벨라루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
(2017. 4. 11.)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2017. 4. 14.)



한국연구재단 체육행사
손에 손잡고 한마음 둘레길
걷기 행사
(2017. 5. 12.)



한국연구재단-한국기술사회
업무 협약식
(2017. 5. 23.)



한국연구재단
[2017 서울경제 서울포럼]
미래한국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2017. 5. 24.)



한국연구재단
제401회 학연산
연구성과 교류회
(2017. 5. 30.)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워크숍
(2017. 6. 8.)



한국연구재단
40주년 기념 행사
(2017. 6. 21.)



한국연구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MOU 체결식
(2017. 7. 5.)



한국연구재단
청렴 고객만족 선포식
(2017.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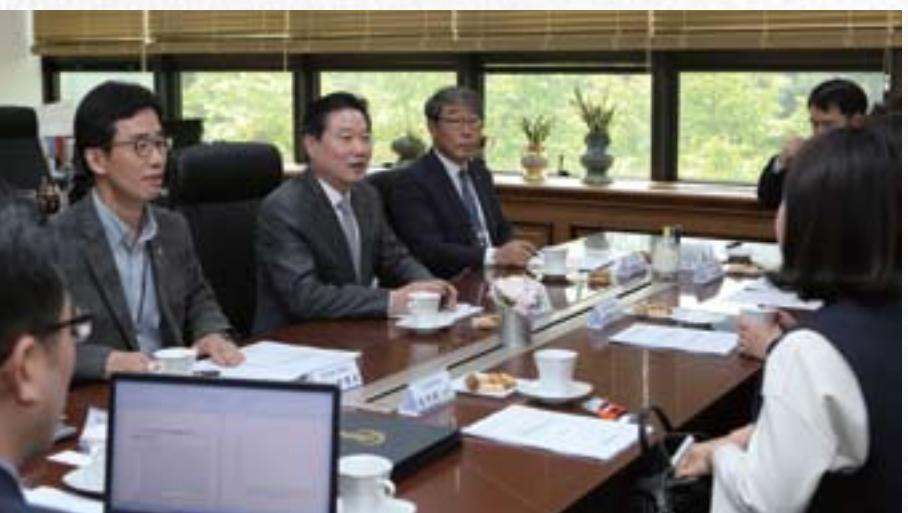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2017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17. 8. 29.)



한국연구재단
-대구광역시교육청
MOU 체결식
(2017. 8. 30.)



한국연구재단 김서실
감사자문위원회
(2017. 3. 20.)



한국연구재단 김서실
제 1회 한국연구재단
반부패 청렴위원회 개최
(2017. 4. 26.)



한국연구재단 김서실
옴부즈맨 회의
(2017. 8. 16.)



한국연구재단 김서실
2017년 전국대학 신학협력단장
연구처장 간담회
(2017. 8. 30.)



한국연구재단 김서실
대전 연구단지
청남 클러스터 협약식
(2017. 9. 15.)



한국연구재단 김서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협의회 협약
(2017. 10. 30.)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

한국연구재단,
40년을 말하다

한국연구재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에피소드
-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포럼
-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 포럼
- 통계로 보는 40년

International Cooperation? Inner-organizational Cooperation first!

박정호(국제협력센터 아시아협력팀 연구위원)

예상치 못한 큰 행사 준비, 그리고 불면의 밤

1994년 4월 어느 날, 유럽지역 협력 담당 과장 보직을 받은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다. 1988년 입사 이후 지금 까지도 다시는 일어난 적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지역과의 협력은 대상 국가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기관협력 활동도 활발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 업무만 해도 벅찬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그해 11월로 예정된 스웨덴 국왕의 방한 일정 중 양국 공동세미나와 국왕 일행 초청 공식 만찬 개최 임무가 우리 재단에 부여된 것이다. 칼 구스타브 스웨덴 국왕과 주한 대사, 연구 지원 기관장, 대학 총장, 기업대표 등 거물들로 구성된 약 30명의 스웨덴 대표단과 한국 측 연사, 기관장급 외빈 등 약 100명 규모의 귀빈들을 모시는 세미나와 만찬 행사였다.

행사준비는 예산과 인력과 시간의 조화가 요구되는, 예술로 말하자면 종합예술 작업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행사였으니 예산은 당연히 '0원', 인력은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직원 1명을 포함한 2명의 직원과 보조 인력 1명, 시간은 6개월, 그게 전부였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임무가 떨어진 날부터 며칠간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 그 큰 숙제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든지 해서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스웨덴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를 우리 재단 만큼 가진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다른 기관에 숙제를 떠넘길 명분을 찾지 못했다.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혼나고 말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렇지만 매 맞고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숙제도 아니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었다. 어떻게든 해야만 했다. 알량한 자존심,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공명심 때문에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었던 만큼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중한 책임과 산더미 같은 업무가 양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동안 상남자인 척, 강한 척하느라 감춰온 일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임무가 떨어진 날부터 며칠간, 정말 어울리지도 않게, 불면증과 함께 행사를 망치는 악몽에 시달렸다. 대책 없이 시간만 가고 있었다.



점점 더 커지는 일,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

코가 쑥 빠져서 꺼칠해진 얼굴로 출근하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한 선배를 만났다. 안색이 안 좋다면 무슨 일 있나고 물었다. 이런 저러한 사정을 들어대며 엄살도 좀 섞어서 하소연했다. 역시 ‘찜’이란 대단한 것이었다. 기만히 듣고 있던 선배가 엉킨 실타래와 같이 복잡하게만 보이던 일들을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해주었다. 확실하게 가진 것은 6개월이라는 시간뿐이었지만 6개월 동안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혼자 고민하며 보낸 시간이 아깝고 억울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었다. 대강이라도 먼저 예산과 인력 소요를 파악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본관 3층에 있던 사무실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시나리오 작성에 들어갔다. 1박 2일간의 작업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큰 윤곽이 잡혔다. 예산과와 총무과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양 과장님들 모두 선배들이라 폐쓰기가 좋았다. 가용예산 파악과 전용, 인력지원 등 원하는 것은 뭐든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어리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그 덕에 참 용감하긴 했던 것 같다. 준비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수 및 교체 등을 위해 소요 예산도 늘어갔고, 주차관리, 안내, 의견 등등, 인력 소요도 늘어만 갔다. 일이 점점 더 커졌다. 도망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늘 위안이 되었던 건 사람들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묘약, 아니 부작용 없는 청정 마약과도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자신감과 늘 새로운 힘을 솟아나게 해주었다.

행사와 동선별 시설 및 장비 점검과 교체, 부서별 지원 인력 차출 등은 총무과에서 아예 전담해주기로 했다. 예산과에서는 6개월 동안 수차례 요청한 예산변경 작업을 싫은 내색 한번 없이 도와주었다. 국왕 일행의 동선과 경호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난생처음으로 청와대라는 곳에도 가보았다.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촌놈이 출세했다는 생각과 함께 새록새록 책임감도 느껴졌다. D-7일부터는 청와대 경호팀이 폭발물 수색견과 함께 청사에

상주하면서 내부 직원들까지 출입을 통제하고 국왕의 동선을 따라 시설물 봉인 등 경호 강화에 들어갔다.

부서 간의 협업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았던 6개월은 말 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갔다. 1994년 11월 15일, 밤잠을 설쳐 머리는 땅했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밝아왔다. 행사는 오후에 시작했지만 비장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출근했다. 점심도 거르고 경호원들과 마지막으로 동선을 확인하고 오후가 되어 의전 차량, 구급차, 경호 차량이 도착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1994년 11월 15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선배들과 동료들 말에 의하면 행사가 물 흐르듯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잘 끝났다고 말로만 들은 게 다였다. 뭐라도 하나는 빼걱거렸을 텐데… 귀를 의심했다. 행사가 안전하게 끝난 걸 확인한 후, 안도감과 함께 피로감이 밀려왔다. 국왕을 비롯한 외빈들 배웅이 끝나고 “행사 잘되었다. 수고 많이 했다.” 짧은 한마디 말씀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사무총장님(당시 기관장)도 행사장을 뜨신 후, 직원들은 헤어질 줄 모르고 행사장 앞에서 서성거렸다. 뒤풀이를 갈망하는 하나 된 마음이었으리라. 아내와

아이들이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기다리던, 행사장에서 1km도 되지 않았던 집으로 직원들을 초대했다. 스웨덴의 임금님이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는 아이들의 질문에 열렬결에 “그럼”하고 대답했고, 한복을 입은 예쁜 언니, 누나들, 그리고 정장으로 멋을 낸 아저씨들이 우르르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흥분으로 고조된 아이들의 합성과 황당해하던 아내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아이들이 철들기 전까지 한동안 아빠를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덕분에 근엄한 가장으로 꽤 오랫동안 아랫목을 지킬 수 있었다.

행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털 없이 잘 끝나면 그건 당연한 일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 책임 전가와 함께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셀 수 없이 많은 행사를 치렀지만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다.” 지금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 그렇지만 똑같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 “주변에서 다 또 도와줄 거니까.”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행사가 주어지면 또 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던 큰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도취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의 도움에 감사한다. 국가 간의 협력도 내부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큰 교훈도 얻었다. 이후 스웨덴 사무소 개소 작업 때에는 1994년의 기억 덕분에 구스타브 국왕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부서 간의 협업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단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하고도 싶고, 미약하나마 국위선양에도 이바지하였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2017년 8월 현재 우리 재단이 51개국과 맺고 있는 80개의 협력각서는 지난 40년간 우리가 짜온 촘촘한 그물이며 재단이 가진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전 세계에 있다는 것도 마음 든든한 일이지만,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할 친구들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무슨 정신으로 그때 그 큰일을 해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하나 분명한 건 부서 간 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떠오르는 건 다들 자기 일처럼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들뿐이다.



‘인문학 위기선언’ 이후 10여년, 인문학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양정모(정책연구혁신센터 성과조사분석팀장)

인문학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위기선언’
한국연구재단이 2009년 6월 통합되면서 인문학은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 주력해 지원하고 있다. 인문학진흥은 2006년 전국 인문대학장들의 “인문학 위기선언”을 기점으로 연간 1,000억 원의 투자요구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용하면서 2007년 “인문학진흥방안”이라는 사업으로 인문학분야에 대한 큰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계획이 제안되고 2010년에는 전국의 분야별 학회장과 대표학자 60여 명이 모여 “203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을 수립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하게 된다. 당시 김남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6개 분과를 나누어 추진전략과 장기비전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굵직한 신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현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위원회는 활동을 보고서에 수록해 역사를 기억하고자 했다. 당시 법제도 분과에서 제안한 법률적 기반 과제는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완성되었고, 2017년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그중 인문학대중화사업은 2007년 인문학진흥방안의 세부사업으로 인문학 연구성과의 일반 국민과의 소통과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초기부터 추진되어온 국내 최고 인문학자의 주옥같은 강의와 원고를 작성해 지원하는 석학인문강좌, 다양한 인문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강의하는 시민인문강좌, 가을에는 전국적인 인문학 축제가 일주일간 열려 “인문주간(Humanities Week)”으로 정착되어 11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다.

유네스코와 함께 개최한 ‘세계인문학포럼’

지금은 안착해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인문학포럼이 처음 재단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된 2011년은 추진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당시 장기원 유네스코 한국대사가 한국의 유네스코 내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세정 이사장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 재단의 협력 요청 내용은 크게 4가지였는데, 첫째가 유네스코 아태지역을 거점으로 한국(한국연구재단)과의 협력 강화, 세계인문학포럼 공동개최(한국, 유네스코),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 진흥방안(유네스코 인문학 거점을 한국연구재단으로 두는 방안 포함), 유네스코 글로벌 인턴십 파견 인원 확대 등이었다. 실로 엄청난 제안을 했고 이 중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유네스코와 한국의 세계인문학포럼 개최였다.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네스코 본회의 참가국의 의결을 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의 역사적 리더를 자칭하는 영국과 독일의 자존심은 실로 대단해 제1회 대회 개최지를 한국으로 정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 발언으로 만장일치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1년 11월 개최지를 부산으로 정하고 포럼 주제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Universalism in a Multicultural World)”를 확정하는 국제추진위원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5월이었다. 그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에는 최초의 여성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가 폐막일에 직접 방문해 행사의 피날레를 자축했다. 폐막일에 맞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학술원장 박영식 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하남식 부산광역시장,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함께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감동적인 폐막이었고, 부산시민의 인문학 사랑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2016년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이 수원에서 개최된 것은 다음 소개되는 인문도시와 인연이 깊다.



인문학 대중화 전성시대의 전환점이 된 ‘인문도시사업’
2007년 시작된 인문학진흥 정책은 5년째를 맞아 안정화되고 전국적인 참여 확대와 인문학 진흥을 표방한 자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인문자산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일었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인문도시이다. 매년 정조대왕 행차를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던 터에 2010년 인문도시로서의 정책을 선언하게 된다. 당시 권호종 인문학단장은 부임하자마자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을 한다. 2016년 31개 지역을 거점으로 인문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1년 당시 수원과 통영이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럽이 매년 유럽문화 도시를 선정해 유럽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효과까지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했다. 시행 첫 해 바로 성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던 2012년 인문도시사업의 정책적인 추진이 난관을 맞았을 때, 국회 예결위원회 지역구가 통영인 것은 운명이었을까… 그 해 샥감되려던 인문학대중화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해 현재와 같이 확장되었다. 인문학 대중화 전성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전환점이었다.



Summary

203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위원회 운영 경과록

연구기간 동안 인문사회 및 유관분야 6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Ⅱ부와 부록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Ⅱ부에서는 분과별 현황 진단과 포괄적인 제언을 소개한다.

장기비전위원회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각 분과 소속 위원들 사이에는 제Ⅰ부에서 밝힌 총론 수준의 공감대만 있었다. 해당 분과별로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명료히 하기 위해 난상토론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한 끝에, 제Ⅲ부에 소개할 6개 중점추진과제로 의견을 집약할 수 있었다.

인문사회의 근본정신은 ‘과정 중시’와 ‘다양성 존중’이다. 분과위원회는 이 정신에 충실히 백화제방(百花齊放)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Ⅱ부의 6개 장은 이러한 근본정신이 잘 드러나도록 인위적인 조정과 여과를 극도로 자제한 결과물이다. 일부 논의의 산만함과 중복을 감수하고라도 분과별 특성을 살리려는 것은 이 연구보고서 전체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선된 결과를 보려는 독자를 위해 따로 제Ⅲ부와 부록을 할애했음을 밝혀둔다.

법제도기반강화분과(제6장)는 인문사회분야의 진흥과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에 주목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과제로 분과는 (가) ‘인문사회진흥기본법’ 제정, (나) (가칭)국가인문사회위원회 설립, (다) 인문사회기획평가본부(원) 설립을 선정했다. 3개의 추진과제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유사 법제도와 외국의 사례를 꼭넓게 참고하는 한편, 법률전문가의 자문과정도 거쳤다.

인문학분과(제7장)는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인문학 현황을 진단해 다양한 인문학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사회과학분과(제8장)는 한국사회의 압축적 성장경험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임에 특별히 주목하고, 한국적 현실에 기반한 사회과학을 정립해 이를 세계로 발신할 장단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세계의 학문발전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 여러 학문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활성화되리라는 것이 융복합분과(제9장)의 일치된 전망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경제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은 한국학을 요청한다는 것이 한국학분과(제10장)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로부터 ‘세계와 함께하는 열린 한국학’을 수립할 여러 방안이 강구되었다.

인문사회분야에 쓸리는 대중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현실이 소통활용분과(제11장)의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런 현실에 부응해 인문사회의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지식과 연구성과를 산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203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201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수립 주진위원회)에서 발췌

폭설과 김 교수님

박숙미(기초연구본부 기초연구총괄기획팀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가는 한다!

2004년 3월 5일,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떠났다. 오늘은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토론 평가가 있는 날이다. 사업의 이름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 유독 서울에 계신 분이 평가위원으로 섭외가 되는 사업이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스산하다. 오늘 여려 패널을 한 번에 돌려야 하는 만큼 신경을 바짝 써야겠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 웬 전화?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당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참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성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여보세요. 과학재단 박숙미입니다”

“박숙미 선생? 나 서울대 김 교수요”

바짝 긴장된다. 제발 평가 못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길 빌며 응답한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기 서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거기 상황이 괜찮나요?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부산에서 나고 자란 나는 큰 눈을 본 적이 없다. 더 육이 눈이 와서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교수님. 여기는 그리 심히 내리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와주세요.”

“알았어요. 내려가리다.”

휴~ 다행이다. 태풍이 몰아쳐도 평가를 하는데 그깟 눈내린다고 평가를 못 하면 안되지 암.

몇 분지 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다시 울린다.

“박숙미 선생. 또 나오요. 오늘 자동차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터미널로 왔는데 눈 내리는 거 이거 보통 아니요. 정말 대전은 문제가 없소?”

“네 교수님. 평가를 못 할 만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통화를 끝냈다. 김 교수님은 버스를 타셨다.

기록적인 폭설과 평가회의 취소, 그리고…

그리고 몇 시간 후 우리는 모두 하늘을 쳐다보며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모시려 했던 22명의 평가위원은 고맙게도 평가는 하고

만나는 집념으로 어떻게든 과학재단으로 오시고 계시는 중이다. 10시 30분경 평가회의 취소한다는 내부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돌아가 주십사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분은 고속도로에서 또 어떤 분은 대전 한복판에서 눈에 파묻힌 채로 전화를 받으셨다.

나에게 두 번 전화하셨던 김 교수님께도 전화한다.

“박사님, 평가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갇혀 있던 김 교수님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신다.

“나 다시는 과학재단 박숙미한테서 평가의뢰 섭외가 오면 연락받지 않을 테니 그리 아시오.”

이리저리 평가위원들께 모두 연락을 취하고 한숨을 돌려 서 나도 퇴근한다. 눈길을 걸어가는 중 서울에서 오셨던 여자 교수님께 전화가 왔다.

“요즈음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온통 하얗기만 한 고속도로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할 시간을 주셨네요. 고맙게도.”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자료 들고 서울로 찾아 갈 테니 다시 한번 모여 주십시오. 엎드려 빌어서 지역대학우수과학자를 선정했다. 각자 눈밭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눈물겨운 무용담으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회의였다. 김 교수님은 오셨던가? 눈이 내리면 항상 생각이 난다. 그때 그 김 교수님이.



도전 40년,
미래 40년의 길을 묻다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포럼

2017년 6월 26일로 창립 40주년, 통합 출범 8주년을 맞이한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지난 40년은 한국의 기초연구 발전의 역사이며, 국내 기초연구와 R&D의 미래이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열띤 토론으로 진행된 학술포럼의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피터 슈워츠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은 선도적 R&D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커다란 숙제이자, 도전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40년의 비전을 들어보자.





/
세션(1)
주제발표

미래형 인재 호모 크레아투라 육성

박태현(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첫 번째 세션인 ‘미래형 인재 호모 크레아투라 육성’의 발제에서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뇌 발달 과정에서 10대 초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0대 초반은 신경세포 가지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시기로, 판단·기획·조직적 사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덜 성숙하였기에,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 꿈,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인재는 창의력(꿈, 상상력, 재능 발굴)을 갖추고, 융합적 태도를 지니며,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기업가 정신)를 추구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조강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학술융합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미래사회를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및 인문의 초융합으로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 사회(HOLOCRACY)’로 규정하면서, 세상의 융합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자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기상의 융합으로, 4단계(데이터 수집 <IoT>→저장&분석<CLOUD/BIG DATA>→가치창출<A.I>→최적화<기술융합>)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창조성과 협력성을 두루 갖춘 ‘협력하는 괴짜’을 제시하면서, 미래사회의 교육은 지식 습득이 아닌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D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와해성 및 돌파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패를 지원하라’, ‘기술배심원제도’ 평가 도입,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징벌 강화, 시장지향적 기술사업화, 한국형 OCS제도(K-OCS) 도입 등을 강조했다.



미래사회 모멘텀 R&D 시스템 혁신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

두 번째 세션 주제인 '미래사회 모멘텀 R&D 시스템 혁신'의 주제발표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그간 한국의 R&D와 과학기술 성과의 괄목할 만한 성장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편으로 국가 부처별 복잡다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장기 계획은 선진기술 Catch-up 단계에서는 적합했으나 기술융복합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공공연구기관들은 본래의 연구기획 기능이 실종되고 부처별 중장기계획 실행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부처가 추진할 과제의 상시 발굴, 기획, 실행할 전담 기구인 '(가칭)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사업(Top-down)과 창의적 기초연구개발사업(Bottom-up)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별로 총액예산제를 시행해 기관의 임무 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R&D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획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선해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한 PD(Program Director) 중심으로 수행하고, 평가는 공정성, 형평성 중심에서 전문성, 책임성 중심으로 실시하며,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연구몰입도를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제안했다.



/
제1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윤정로

먼저 포항공과대학교 정우성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현 교수께 제1주제에 대한 토론
을 부탁합니다.

정우성

많은 분이 이야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
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뀐다. 이런 이
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책이 나왔던 것 중에 ‘사다리 걷어차기’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가 쓴 것입니다. 선진국이 옛날에는 본인들도 보호무역주의를
했으면서 요즘은 후진국과 개도국이 못하게 하고, 심지어 환경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후진국, 개도국의 추격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이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서 매우 많은 곳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것 역시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R&D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들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효율성’이기
에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게 선진국이 만든 프레임에 갇히는 거고 결국 그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새로운
선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리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술이나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기 속,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굉장히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복합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카오스 같은 특성을 볼 때는
더욱 기초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구라든지 인재라든지 한국연
구재단이나 발제한 창의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월 중순에 13
개 부처 기초원천사업을 과학기술총괄부처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드
디어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를 좀 더 진흥시킬지가 한국연구재단을 비롯
한 우리 연구현장, 과학기술인들에게 던져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외부의 불신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안 그래도 정부라든지 이런 데는 제도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런 쪽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의 권오경 회장님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전문기관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연구자 친화형, 연구자주도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사다리 걸어차기를 막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도적인 역할과 관련해 퍼스트 펭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에 펭귄들이 뛰어들어서 물을 건널 때 보면 아무도 안 뛰어들다가 처음 한 마리가 탁 뛰어들면 우르르 다 뛰어듭니다. 처음 한 마리가 굉장히 도전적인 펭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일본의 온천지역에 가면 원숭이들이 온천욕도 즐기고 온천에 음식 넣어서 달걀 삶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1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퍼스트 펭귄과 같은 원숭이가 한두 마리 있어서 아까 발제해주신 전두엽의 의의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처럼 학습과 진화에 관한 큰 사례였습니다. 어떤 한 원숭이가 갑자기 달걀을 온천에 넣어보고 온천욕을 즐겨보고 도전적인 것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도전이 진화로 이어진 것이죠. 도전과 진화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윤정로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우리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지원정책과 지원제도와 지원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이 인상 깊습니다.

김현

포럼을 들어오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4조 8천억 원 가운데 인문계 지원이 2천억 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약 4%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동의합니다.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NH 같은 경우에 예산이 거의 한 억 4,9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2천억 원보다 적습니다. 설사 전체 한국연구재단 예산의 4%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인문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연구기회에서 이뤄지는 지원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입니다.

오늘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혁명에 의해서 결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진화하고 변화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일자

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일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길지라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강한 사람은 일자리 이전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문계 대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연구재단은 매우 성실하게 러다이트 운동가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견고하게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담론이 무성하지만,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인문지식을 탐구하고, 그 결과가 디지털 세계에서 데이터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준비조차 미흡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입니다. 상상력은 인문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박태현 이사장님, 이민화 이사장님 인문학자가 아니면서도 상상력 넘치는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인문학자들은 아주 엄밀하게 데이터를 따지는 데이터 과학자들입니다. 그 데이터의 종류가 고문헌이고, 고고학적 유물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상상만 해. 연구는 우리가 할게’라는 것은 매우 정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자들도 그 본연의 가치 있는 연구를 새로운 방법으로, 특히 디지털시대의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인문학적인 지식이 소통되게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역시 그렇게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 아젠다에도 그 구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제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조금 더 강한 연구기획력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재 수요자들이 이걸 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학문사업은 굉장히 한국연구재단이 큰 도움 줘서 인문학계가 혜택을 받은 일이지만, 인문학자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호스피스 사업이다.”

호스피스 사업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해서는 인문학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문학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을 가깝게 다가가서 거기에 어떤 융합영역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를 기획함으로써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윤정로

김현 교수님이 보내주신 포럼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모든 사회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재교육받아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주신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문일

앞선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의 공통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은 ‘융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4차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융합 또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77년에 미국 NSF를 모델로 해서 한국과학재단이 생겼습니다. 이후 81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된 이후 2009년에 통합했고, 올해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전 세계적으로 인문사회하고 과학기술이 같이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일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자체가 융합을 시도했고, 지난 40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도 본부 간에 팀 간에 매칭되는 게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 같이 가는 그런 융합적인 것, 통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 국책연구본부에서 12대 유망기술 책자가 나왔습니다. 기관별로 10대 유망기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은 실제 예산을 넣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예산 체계가 정말 큰 눈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와 인문사회

관련된 분들 모시고 같이 이걸 1년 동안 해봤습니다. 나름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 신뢰해야 정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공주

한국연구재단에 오면서 생각해본 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20세기 처음 기초과학이 탄생할 때, 다른 말로 교과서에 들어 있는 모든 지식이 탄생할 때, 일제와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아무 이바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모든 지식은 서양에서 온다.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깨야 하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개념이 전 세계에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대학교수들 이하 여러 선생님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젊은 연구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어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음 세대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 외국에 나가 일하면 더 신나서 열심히 일하는가. 그것을 우리 세대의 사람들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젊은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불신사회에 있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도둑질을 할 사람들처럼 우리를 감독하고 있는데, 그 문화가 깨지지 않는 한 창의성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불신사회지만 과학계에서라도 먼저 신뢰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비와 관련해서요.

2.3조 원을 기초연구에 쓴다고 하지만, 대학에서 쓰는 것은 9,5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400억 예산 중에서 가장 잘 쓴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좋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으로 앞서 권오경 회장님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가 됐다는 게 어느 날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사실 매우 많은 사람들, 특히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기반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원의 감사 등 설득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신뢰하는 연구자들에게,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4차 산업은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잘 변해왔고, 그 변화에 어떻게든 잘 적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뢰 사회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규

인문학계에서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공학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노력하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간에게 필요하냐, 이런 판단만 하면 된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여러 군데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문학자들과 공학이나 자연과학하시는 분들의 괴리가 매우 크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 진흥에 관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책과제를 하면서 전국의 인문학자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인문학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인간의 가치, 본질, 존재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 인문학적 상상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인문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따뜻하게 먹고 살고 월급 받고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공학 하는 분들이 기술개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히 먹고 사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밖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 생활의 편리, 이런 것들을 담보해주는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내부로 들어왔다는 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과연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별씨 '로봇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로봇 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민화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고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이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비도 받고 평가도 하고 하면서 인문학 분야 관점에서 느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김현 교수님께서 인문학 연구비가 2천억 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문사회본부 예산이 2천억 원 되고, 그중에 단이 세 개 있으므로 실제 인문학 분야에 주어지는 것은 1천억 원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토양으로서의 생태계로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안. 지금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기능이 평가의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존립의 근거로 공정성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공정성만 가지고 과연 한국연구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월성과 효율성도 이제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어떤 것이 있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이 평가공장입니다. 라는 이야기. 평가공장의 기능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세계에서 잘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잘하려면 정말 기획본부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의 여러 가지 평가사업을 다녀보면 정말 단장님, 그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이, 평가를公正하게 어떻게 할까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인문학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오늘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과의 괴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업체 분들

도 오고 공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대표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극을 좁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융합해야 하므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인문학에 관련된 국제기관, 연구지원기관이 대략 15개 정도 됩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비슷한 사업도 있고 또 상당히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기관의 모임도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연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부탁드립니다.

윤정로

다섯 번째서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in Global Perspective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국제학술포럼

과학기술의 진보, 거대화 및 학제 간 융합으로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벨과학상 역시 단독 수상에서 공동 수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노벨과학상(2017년) 또한 다양한 국적과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연구한 결과들에 수여됐다.

AI, 자율주행 등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공동연구·융합연구는 필수불가결한 길이며,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역시 더 많은 국제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일본, 스웨덴, 호주, 러시아 등 연구개발 선도국 연구지원기관장과 국내 석학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해외의 다양한 공동연구 지원경험과 정책을 알아보고 AI, 뇌과학, 로봇연구 등의 첨단분야 발전현황 발표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글로벌 선도기관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선진국 연구지원기관장들의 국제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 강화방안

오전에 진행된 연구개발 선도국 연구지원기관장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어떠한 국가도 홀로 글로벌 이슈의 해결책을 찾을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맞닥뜨린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산업과 연계하고 개별 국가 차원의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의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휴 브래들로(Hugh S.Bradlow)

–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ATSE) 이사장

현재의 세계는 기후 변화, 도시화, 보건과 고령화, 식량과 수자원 안보와 같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특히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혁신적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야기할 위협과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축적과 함께 산업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며, 이는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10년엔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던 음성인식 기술이 이제 고성능 컴퓨팅과 신경 네트워크 기술 간의 결합으로 발전돼 지난해부턴 기계가 인간보다 인간의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하게 됐다. 이처럼 산업 인터넷과 빅데이터 · 클라우드 기술 발전이 앞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는 과학기술 연구와 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혁신 기술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산업과의 협력, 국제 연구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이치로 안자이(Yuichiro Anzai)

– 일본 학술진흥회(JSPS) 이사장

오늘날 인구 증가, 식량과 식수 공급, 보건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학술진흥회를 비롯한 일본 내 여러 연구 기관들이 학제 간 연구 촉진과 함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전개해 온 여러 활동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학술진흥회는 일본 연구자들이 해외의 연구 허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왔으며, 국제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지원기관과의 협력체(HORCs)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학술진흥회는 연구자들 스스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향후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 연구자 중심의 자유로운 상향식 국제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각국의 연구지원 기관들의 강력한 동반관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학술진흥회는 한국연구재단과 1979년에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이 가장 활발한 기관 중의 하나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연구자들이 국제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와 연구를 했고, 일본연구자 1,200여 명도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스вен 스태프스트룀(Sven Stafström)

– 스웨덴 연구협의회(VR) 이사장

유럽연합(EU)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회원국의 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Horizon 2020)’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고, 연구자들이 미래 사회와 연관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유럽연합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연구비 지원과 국제 공동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동안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해 유럽의 가치를 증진하고, 연구 성과가 학술 영역을 넘어서 확산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를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력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협력활동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출될 연구개발 협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 한국은 스마트폰 제작 등 엔지니어링에서 강점을 가졌지만, 소프트웨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와 손을 맞잡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웨덴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 동반관계를 맺고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크파르다코프(Vladimir Kvardakov)

– 러시아 기초연구재단(RFBR) 부이사장

러시아 기초연구재단에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뇌과학, 이산화탄소 저감, 우주인 방사선 차단 등의 거대 프로젝트 분야에서 다자·양자 방식의 국제협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기초연구도 목표 지향적이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러시아 기초연구재단에서는 목표 지향성 연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제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인식해 많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러시아 기초연구재단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한국연구재단과의 지속적 협력을 희망하며, 특별히 내년에 한국연구재단과 러시아 기초연구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 세계연구지원기관협의회(Global Research Council)’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신희섭

-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

인간의 뇌는 100조 개의 시냅스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1천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뉴런 네트워크는 인간의 인지, 감정, 생각, 의사 결정 그리고 의식 등에서 비롯하는 행동의 기반이 된다.

인류 문명이 뇌 기능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뇌 연구로부터 생산된 지식은 의학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등 인간사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뇌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산업 그리고 학계가 협력해 뇌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
2부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역할

불과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SCI 논문과 특허 등록이 전혀 없었던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이 현재 한 해 5만여 건에 달하는 SCI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물결 위에서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국내 대표 과학기술인들의 발표를 통해 첨단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점검하고 뇌과학, 유전공학,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과 국제협력 전략을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뤄졌다.





김진수

-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연구 주제인 유전자 가위는 세포 속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 원하는 대로 자르고 편집하는 기술로써 제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 동식물 개량연구 등에 빠르게 응용되어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수준과 향후 무궁무진한 응용 가능성을 볼 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유전자 가위와 관련한 우리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공동 연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내 공동연구가 많은 편이다.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공동연구가 아닌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과 경쟁력을 갖춰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협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한국, 일본, 중국 3국으로 이뤄진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21%, GDP의 24%, 전력 소모의 29%,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해 뒤처져 있으며, 파리 협정 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역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2017년 9월 이뤄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 그리드에 대한 청사진은 앞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북아에서의 탄소 시장 개발과 에너지 분야 및 수송 시스템의 4차 산업 혁명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빅뱅(Green Big Bang)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를 주축으로 탄소 제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오준호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인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당면하고 있는 기술적
인도전이 필요하다. 이 도전에는 인공 지능, 시각/음성 인식, 의사소통, 기술적, 하드웨어
구조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수준도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KAIST 휴보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국제협력 및 연구전략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연구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억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
른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공동연구를 요청하고,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염재호

- 고려대학교 총장

제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요인들과 함께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대학이 요구받고 있는 중
대한 도전 과제들을 지켜보면,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방법으로 미래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교육은 20~3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고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반성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과 인재
를 키우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미래 취업 시장에 부합하
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발
전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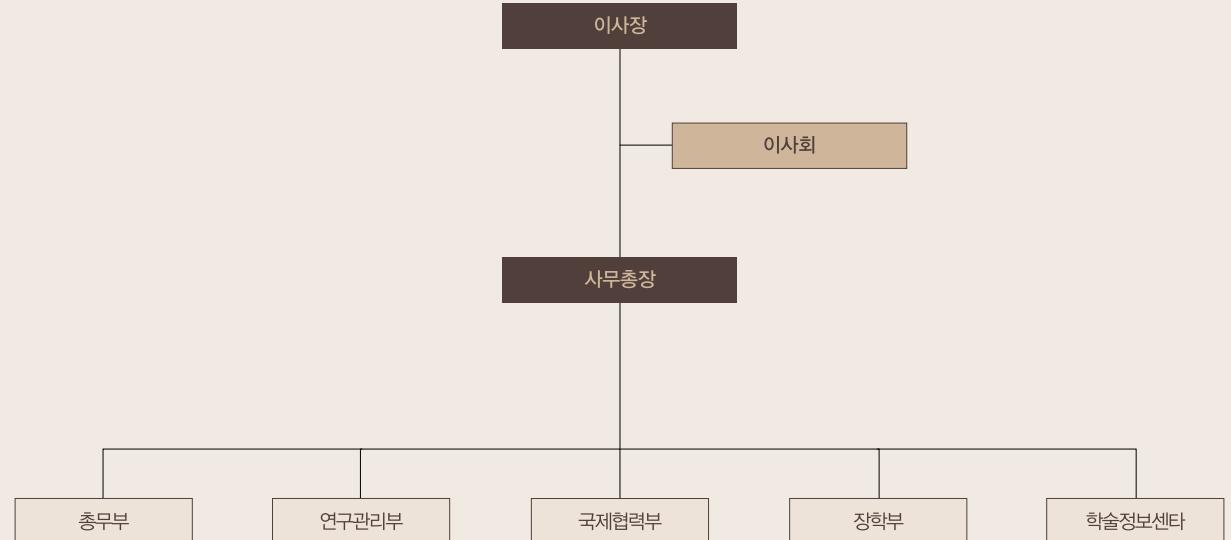
향후 한국의 대학들은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
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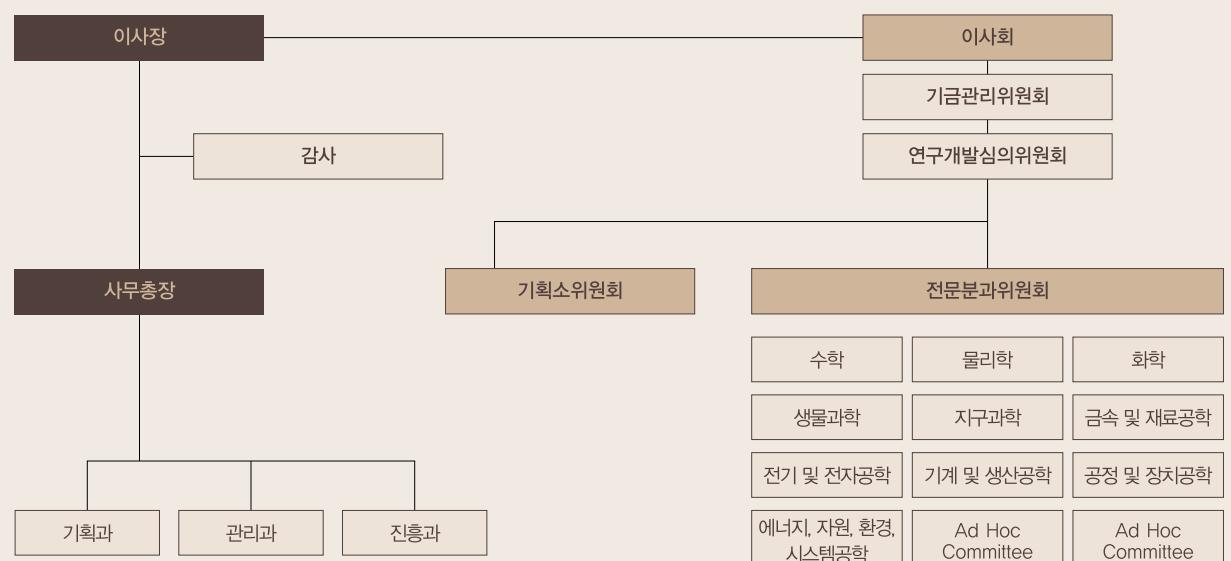
인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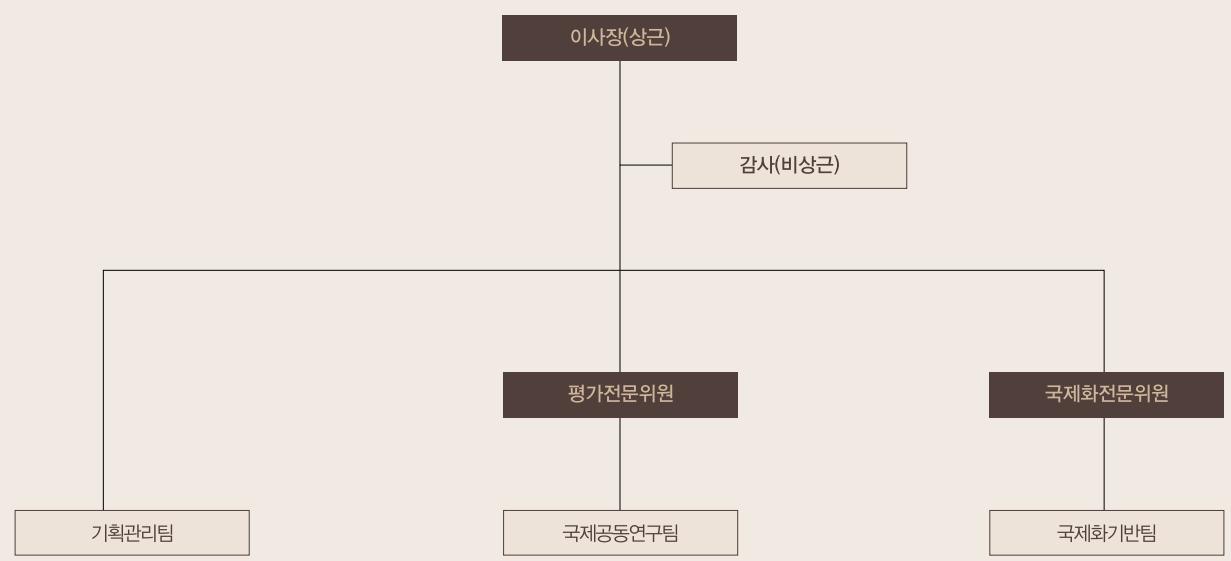
한국학술진흥재단(1981년 4월)



조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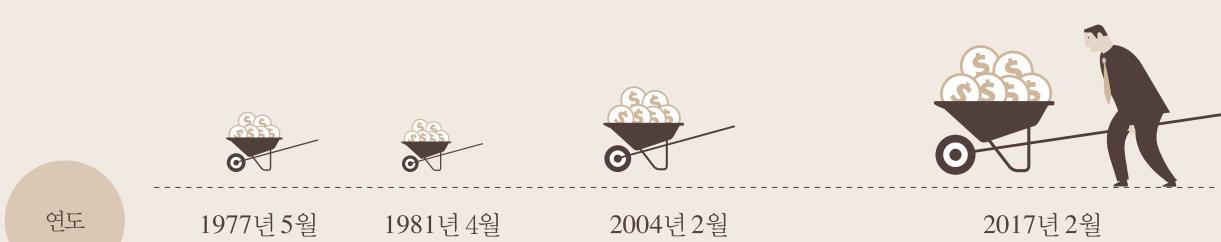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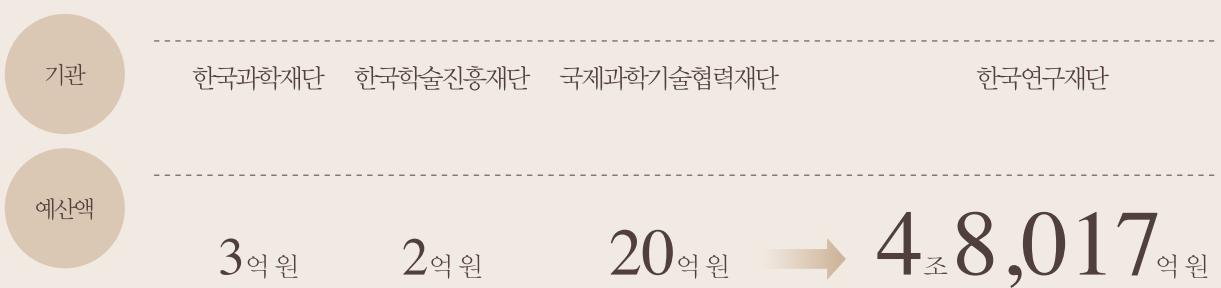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2004년 2월)



한국연구재단(2017년 2월)



예산 변화



학술지 등재 논문 수 변화



지적재산권 변화



지적재산권 변화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3

한국연구재단,
40년을 기록하다

한국연구재단은

4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First – Mover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의미 있는 기록
- 언론 속 한국연구재단 이야기
- 사진으로 보는 어제와 오늘

기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
2회 연속 수상
(교육부)



2011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노사문화우수기업
(고용노동부)



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
2회 연속 수상
(교육부)



20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교육과학기술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2년 연속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경영실적
성과평가 A등급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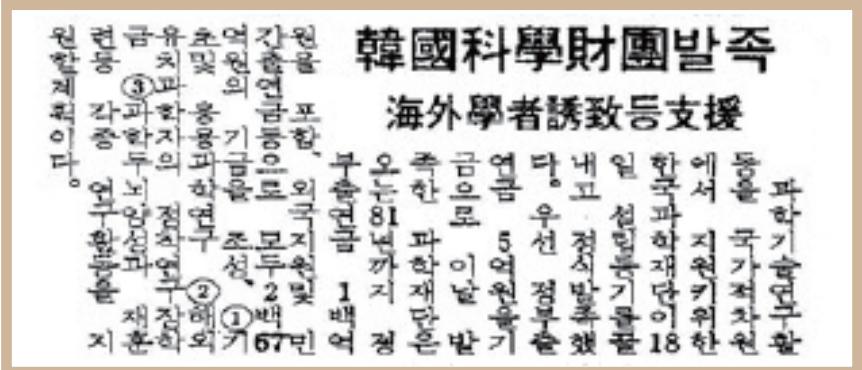
2013

2014

2016

1. 한국과학재단 발족 1977

한국과학재단
발족
해외학자유치 등 지원



과학기술연구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재단이 18일 설립 등 기를 끝내고 정식발족했다. 우선 정부출연금 5억 원을 기금으로 이날 발족한 과학재단은 오는 81년까지 정부출연금 1백 억원을 포함, 외국지원 및 민간출연금 등으로 모두 2백 67억 원의 기금을 조성, 기초 및 응용과학연구, 해외유치과학자의 정착연구장학금, 과학두뇌양성과 재훈련 등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1977년 5월 19일

2.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1979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법안 마련, 국가차원서 종합지원



문교부는 10일 학술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 강구와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학술진흥법안을 마련, 여당권 심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종전의 소극적인 연구활동 방식을 지양하고 학술활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학술연구재원의 확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가 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과 학술단체 간의 연구지원, 학술정보교

류체계 확립, 국제학술교류지원과 함께 학술 연구회관을 부설해서 하루 속히 선진국의 학문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돋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국무총이소속하에 심의기관으로 학술진흥심의회를 두어 학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예산의 종합적인 조정 등 학술연구방향과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일보 1979년 9월 10일

3. 기초과학진흥원년 선포 1989

기초 과학 투자 '황소걸음'
21세기 경제 대국진입 제동…연구 활성화 예산 200억 수준
고급두뇌 잠재력 사장 일쑤…눈앞 이익보다 긴 안목 절실



기초과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을 목표를 낮춰 조정하는 등 성장 한계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상품 수출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핵심요인을 따져 들어가면 창조적 기술개발능력 즉 기초 과학 기반이 취약한 때문이라는데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 육성의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되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황소걸음 이어서 21세기 경제대국 또는 기술선진국 진입의 희망은 한낱 몽상에 그치고 말 것이란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과기처는 뒤늦게나마 올해를 기초과학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초 연구 활성화 자금 3천억 원 조성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예산 당국에 반영된 것은 고작 2백 억~3백 억 원 이어서 학계와 연구계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학계는 경제정책당국의 구태의연한 발상을 비판하면서 기초과학 방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8일 63빌딩에서 개최한 기초연구활성화 세미나에서 이장규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

의 연구 기능은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 왔다며 국내대학의 연구 환경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기초 연구비의 대학 사용비율이 일본 60.6%, 프랑스 65.7%일 때 한국은 49%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연구비의 7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27% 정도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교수 대 학생비율이나 강의 부담 시간은 월등히 많아 방대한 우수 연구 잠재력이 거의 파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서강대 교수는 기초과학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데 인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획기적인 기초연구활성화시책을 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현훈 대우자동차부품 사장은 기초연구 투자는 미래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이므로 경제발전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비용과 대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1989년 9월 9일 – 서인경 기자

4. 우수연구센터(SRC, ERC) 시작 1989

‘우수 연구센터’ 30개 대학 신청
생명공학분야 38개연 몰려 최고 기록
5개 선정 총 20억 지원

대학의 탁월한 연구집단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과학재단이 올해부터 첫 실시하는 우수연구센터선정에 전국 30개 대학에서 1백 44개 연구센터가 응모, 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과학재단은 우수연구센터를 기초과학연구센터(SRC)와 기초공학연구센터(ERC)로 구분, 지난 15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 지역 13개 대, 지방 17개 대로부터 SRC 73개, ERC 71개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생명과학분야에서 SRC 및 ERC를 포함, 38개 센터가 신청,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전자분야 21개 센터, 재료분야 18개 센터, 물리과학화공 기계 등 3개 분야에 각각 13개 센터, 수학·지구·과학 각 6개 센터, 기타 22개 센터의 분포를 보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은 31개, 과학기술원 17개, 전남대 11개, 경북대 8개 순으로 신청됐다.

과학재단은 이들 연구센터 중 5개를 선정, 센터 당 4억 원씩 모두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탁월성 위주의 연구센터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이 너무 좁다.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되도록 많은 연구 집단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우 5개 센터를 지원한다는데 1백 44개의 센터가 응모한 것은 그동안 대학의 기초 연구가 얼마나 방치돼 있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경제 1989년 8월 26일

5.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시작 1995

대학 연구비지원 관리등급 세분화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대학 연구비지원…관리등급 세분화



국내 대학의 연구비지원중앙관리제도가 마련됐다.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박진호)은 지난 25일 국내 대학에 대한 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대학별 연구비 관리 등급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비 관리실태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등급의 연구비 관리 등급이 올해부터 5등급으로 세분화됐고, 연구비 산정 정산절차 연구비 품 구매절차 등 연구비 관리 전산화가 이뤄지게 됐다.

매일경제 1995년 3월 27일 – 김대성 기자

6. 두뇌한국(BK21) 시작 1999

'두뇌한국 21' 사업내용 요약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우수 지방대도 병행 지원,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기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명문 또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우수학생 집중을 막고 지역 우수대학→세계수준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진학유형을 일반화,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목표도 있다.

◇세계수준 대학원 및 지역우수대 육성= 앞으로 7년간 해마다 2천억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학사과정이 튼튼한 우수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가장 많은 연간 9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분야는 정보기술, 생물, 농생명, 의생명,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등 9개 분야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단에는 대학원 학부나 학과가 단독으로, 또는 몇

매년 20억 (물리,화학)~75억 원(정보기술)이 주어진다. 사업단은 전공 분리 없이 대학원 단일 모집단위로 교수 20~50명이 참가해 구성해야 하며 한 대학 단독으로 또는 2개 대학이 연합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2학년도 입학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他大출신 50% 이상 선발 △교수 업적평가, 급여제도 개선 △연구비 중앙관리제 도입 등 총·학장이 승인한 제도개혁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산업체와의 과제 공동 선정 및 교과과정 공동 편성 등 산학협동 청사진과 지원액의 25%에 달하는 대응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해마다 100억 원이 지원되는 인문사회 부문에서는 한국학, 문화, 동아시아 경제·노동, 사회발전, 정보지식기반사회 등 5개 연구 분야를 공모, 선정되면 8~12억 원씩 지원한다.

대학원 학부나 학과가 단독으로, 또는 몇

개 학과가 연합해 지원할 수 있고 참여 교수가 20~30명 규모여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와 마찬가지의 제도개혁을 약속해야 하고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외국어 강의 등 적절한 목표도 세워야 한다.

연간 총 지원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는 지역 우수대 육성사업은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대학 가운데 공학 등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국 9개 권역별로 고교생 및 대학생수에 따라 15억(제주)~90억 원(대구, 경북)을 나눠주며 한 대학 단독으로 또는 2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할 수 있다.

역시 학과 통합, 교수 승진 및 급여제도 개선,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연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사업은 이미 서울대에 집중 지원키로 약속한 것으로 기숙사 설치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전자도서관 설치 등에 쓰이게 된다.

◇대학원 연구력 제고 위한 특화. 핵심 분야 육성= 세계 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 우수대 육성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대학과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매년 교수들에게 배분하는 학술연구조성비 1천억 원에서 충당된다.

특화분야 연구력 제고사업은 한의학, 영상, 디자인, 외국어 통·번역, 정보통신,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7개 정도의 분야에서 10여 개팀을 선발, 15억 원 안팎씩 5년간 매년 150억 원이 지원된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교수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학부생을 15% 이상 줄이고 지원금의 100%를 대응 투자해야 하는 등 제도개선과 산학협동 청사진을 내야 한다.

또 학문 전분야에서 교수 10명 정도가 대학원 학과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연구력 제고사업은 3년 단위로 총 9백 여팀에 7천만(인문, 사회, 예·체능)~2억 원(공학, 의학)씩 지원된다.

◇대학(원)생 지원= BK21사업'의 목표는

교수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다. 따라서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특화 핵심분야 연구력 재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대여 장학금 및 연구 수행경비(석사과정 월 40만 원, 박사과정 월 60만 원), 해외연수 지원금(1인당 연간 3만 달러 정도) 등이 지급되고 병역특례도 1천 명으로 늘어나 절반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우수대학 해당 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산학협동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원되며 해외연수 혜택도 있다.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관리= 외국학계, 국내 산업계, 학계 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2년 단위로 사업성과를 평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 팀의 경우 하위 20% 과제를 중도 탈락시키고 지원자금은 성과가 좋은 사업 팀에 넘겨주도록 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확보하고 박사급 핵심두뇌 인력을 연간 2천 명씩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 연간 2억 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며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수 고교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한편 사교육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1999년 5월 24일 – 강의영 기자

7.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 2004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6일 개소

과학기술부 산하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LOS)은 오는 6일 과학기술한림원 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동북아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 등의 국내 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지난 해 12월 24일 설립됐다. 이 재단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들과 연계해 해외 우수 R&D센터 및 교육기관 등의 국내 유치업무를 원스톱으로 전담 지원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 재단의 초대 이사장에는 서정욱 전 과기부 장관이 선임됐으며 이사에 현대자동차 이현순 부사장, 한국IBM기술연구소 이호수 소장, KAIST총장, KIST원장, KISTEP원장, 산기협 상근부회장 및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 감사에 이권훈 삼일회계법인 본부장이 각각 선임되었고, 유치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상근 사무총장에는 김기협 전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이 선임됐다.

머니투데이 2004년 2월 15일 – 김현지 기자

8. 인문한국(HK)사업 시작 2008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HK) 예비 선정 결과 발표
전국 8개 대학교 10개 연구소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 이하 재단)은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의 예비 선정 대상 8개 대학교 10개 연구소의 명단을 10월 28일(화)에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8월 28일(목)까지 신청 접수된 전국 53개 대학교의 102개 연구소에 대하여, △연구아젠다(연구실천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소의 연구실적,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운영기반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전국 8개 대학교의 10개 연구소를 예비 선정했다.

본 사업은 인문분야와 해외지역연구분야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분야별로 5개 연구소를 각각 선정하였다. 인문한국지원 사업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세 가지 부분별 사업(연구, 교육, 사회) 중 연구

부분의 세부사업으로,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소 내에 연구주체를 양성하여 인문학 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고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인문 분야 30개, 해외지역연구분야 20개 등 총 50개 연구소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인문분야 16개, 해외지역연구분야 3개 등 19개 연구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아직 연구소 기반 등이 약하지만, 성장가능성과 창의성이 높은 연구소를 인문분야 2개, 해외지역연구분야 8개 등 10개 “유망연구소”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연구소들의 연구 활동과 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인문학단 전용 메뉴 및 각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http://www.krf.or.kr/KHPapp/div/hs/koreaResearch.jsp>)

재단은 올해 신규로 신청 접수된 102개 연구소에 대하여 위원장인 김영한 교수(서강대, 사학)의 총괄 지휘 하에 총 59명의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9일간 합숙심사를 실시하였다. 신청연구소에서 제시한 아젠다가 대체로 학제적·복합적이므로, △문학 △철학 △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합숙심사기간 동안 지속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며, 신청기관과의 면담도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였다. 특히 해외지역연구분야의 경우에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국내 해외지역연구의 환경 △신청기관의 현재 역량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단은 선정된 연구소 명단을 일주일 간 공고한 후 최종 선정하여 11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초기에는 각 연구소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인문학계 및 사회 각계의 자문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7일 – 보도자료

9. PM제도 시작 2009

과학재단, PM도입 등 올 경영목표 발표

‘기초연구지원시스템 선진화 원년’ 선포한 국연구재단 효율적 설립 등 과제 제시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직무대리 문형철)은 14일 ▲(가칭)한국연구재단의 효율적 설립·운영 ▲연구자 친화적 사업 및 시스템 운영 ▲미래 녹색성장기술의 발굴·지원 등 ‘2009년 3대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과학재단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선진형 PM(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 국가 R&D사업 연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학재단은 일부 연구사업의 최종 선정권 한을 PM에게 주는 등 PM의 권한을 강화하며 우수연구자를 PM으로 초빙하기 위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임기가 끝난 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의 통합을 앞두고 건설 중인 ‘국가R&D전문평가동’ 완공시기를 올 상반기 중으로 당길 예정이다. 연구자 친화적 사업 및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선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을 기존 12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여 연구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2009년 1월 14일 – 노형일 기자

10. 3개 기관 통합 2009

한국연구재단 설립 본격화 한국연구재단법 공포…6월26일 재단 설립

한국연구재단법이 오는 25일 공포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설립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6일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부 조직 개편 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설립하는 것으로 교과부 연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 연구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추진하고, 인문사회·이공 분야 융합을 통해 새 학문영역을 개척할 방침이다.

한국연구재단법은 이사장을 상근 기관장으로 하는 한편, NSF 등 선진국의 연구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해 연구개발사업관리에서 연구분야별 전문가 역할 강화를 명문화해 연구과제 지원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 프로그램 매니저)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기존 3개 기관의 권리·의무와 고용 등을 승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한국연구재단법 공포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위원회로 전환해 재단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이뉴스 2009년 3월 24일 – 임혜정 기자

11. 사회과학연구(SSK)지원 시작 2010

한국 사회과학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두뇌한국(BK)’·‘인문한국(HK)’에 이어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한국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만한 안정적인 사회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신규 연구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에 앞서 대학원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두뇌한국(BK)’사업과 대학 인문학 연구소를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을 핵심 중장기 연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SSK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폭넓은 사회 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총체적인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재단은 SSK를 통해 △정치(정치학·행정학) △경제(경제학·경영학) △사회(사회학·인류학) △문화(심리학·교육학) △환경(환경사회학·인구)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자유공모 형태로 올해 연간 100만 원 이내의 소형과제 86개를 선정 지원하고 2단계(2013~2015년)와 3단계(2016~2019년)에는 각각 중형·대형 과제에 300만~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규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BK21 등의 후속 연구 과제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SSK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막스 베버나 아담 스미스와 같은 사회과학자를 배출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처음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 2010년 3월 3일 – 김유경 기자

12. 3개 노조 통합 2011

연구재단, 새해엔 통합노조 출범하나

연구재단이 새해 기존 노조를 통합한 단일노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지난 2009년 6월 통합 설립된 것이 한국연구재단. 통합 이후 3개 기관 소속 노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하고 노조 통합 이후 통합 전 3개 기관별 소속 노조를 해산하고 통합노조와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지부진. 연구재단 노조는 새해 3개 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합한 단일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조항도 전면 개정하는 등 노조 통합 작업을 서두를 계획.

최근 대학가에선 이공계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관심.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4실 1본부 5국에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2차관 산하에 두기로 한 계획안 때문.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학정책실 신설은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과학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개편안’이라 설명. 이 때문에 대학가 이공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공모전에 총 5명이 지원서를 낸 가운데 적임자를 둘러싸고 2강 3약의 구도가 전개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과학기술계의 관심도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 정부출연연구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는 쟁쟁한 인물들이 대거 거론됐으나 막상 공모에 들어가 보니 과학기술계에선 무관심했다며 의외라는 반응. 한편 현재 판세는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와 윤덕용 KAIST 명예교수 등 2명이 2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과학기술계와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측면에서 3약으로 분류.

전자신문 2011년 1월 7일 – 윤대원 기자

13. 노사문화우수기업 2012

한국연구재단,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은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수여되는 '2012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재단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진 노사문화를 일구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하고 행정 및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노사관계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포상제도이다.

연구재단은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에 따라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협상을 통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많은 경영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노사공동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구재단은 3개 기관 통합으로 인한 복수노조에서 지난 2011년 12월 노조의 자발적 통합을 통해 화합의 노사문화 발판을 마련했고,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됨으로써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뉴스통신 2012년 6월 21일 – 박재용 기자

14. SGER 사업 시작 2014

2015년 정부 R&D 예산 어디에 쓰나…
모험연구 지원 늘려 수천배 빠른 통신 개발

한국연구재단이 새롭게 도입한 소규모 탐색연구(SGER ·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에 선정된 연구 과제들이다.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장 결과물을 내놓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다. 정부는 쉽고 안전한 연구만 쫓는 국내 연구개발(R&D) 풍토를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이같이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실패해도 연구자에게 다음 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달라진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2015년 R&D 예산으로 18조 8245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5.9%(1조 45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사상 처음으로 기초연구에 1조원 넘게 투자하고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창업·중소기업의 R&D 지원도 확대한다. 창조경제 3년 차를 맞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내년도 정부 R&D 투자 계획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창의·도전적 연구 확대

최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정보통신 공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수천 배 이상 빠른 통신기술 연구를 시작했다. 최 교수는 "첫 도전이다 보니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가능성에 도전하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지 않은 연구생들과 함께 수년간 연구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연구자에게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며 "도전적 연구를 늘리려면 SGER 같이 논문 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목포해양대 기관공학부 교수의



연구 주제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 법한 ‘지진 망토’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물에 내진설계를 했다면 김 교수의 연구는 땅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땅속에 대형 공명통을 심어 놓으면 지진파가 왔을 때 이를 소리와 열로 바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알래스카 같은 영구동토에 생긴 썩기 모양의 얼음(ice wedge)을 분석해 수만 년 전 대기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있었는지 밝히는 연구에 도전한다. 안 교수는 “지난해 미 공병대가 알래스카 지역에 뚫은 지하터널에서 아이스 웨지 시료를 확보했다”며 “수년간 빙하 속 온실기체를 연구하며 개발한 분석 기법을 아이스 웨지에 적용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우물 파기 환경 구축

정부는 내년 과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 분야에 1조 5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5.3% 늘어난 규모다. 기초 연구 투자가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가 암을 치료하는가”…암 정복에 나선 한국의 바이오텍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확대다.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시범 도입한 SGER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은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자의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시도는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순수 기초과학 분야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환경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신진(일반) 연구자-중견연구자-리더연구자 등으로 단계를 나누고 2~3년 단위로 논문 등을 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평균 10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과학 이론 형성, 난제 해결 트랙을 신설한다.

성과 창출 기여도가 높은 집단기초 연구 지원도 늘린다.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등이 지원 대상이다. 문성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은 “기초연구 분야 투자가 1조 원대에 이른 것은 한국 과학기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개인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14년 9월 21일 – 김태훈 기자

15.

대학 특성화사업(CK) 시작 2014

대학특성화 사업(CK사업) 본격 출범 전국 107개 선정 대학, 9일 충북대서 출범식 가져

지난 7월 대학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 선정된 전국 107개 대학들이 9일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 개신문화관에 모여 대학특성화 사업 출범식을 갖고 낮을 올렸다. 지난해 충북대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을 비롯해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건양대·전북대·국민대 총장 등 107개 사업 선정 대학 총장 및 사업단장,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 1부는 윤여표 충북대 총장의 환영사와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전국대학특성화 총괄 협의회 이만형 회장(충북대 기획처장)의 대학 특성화 선언문 낭독과 함께 40여 개 특성화 사업단에 대한 동판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우송대학의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아시아 전문 경영인력 양성사업단’ 등 각 대학의 11개 대표 사업단의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 사례의 일환으로 국민대학의 발레시연, 우석대학의 아시아뉴스통신 2014년 12월 9일 – 김성식 기자

16. 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 2회 연속 수상 2014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 2년 연속 수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부문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교육기부대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 재단이 교육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 해 동안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대학생 동아리 및 개인 등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연구재단은 금요일에 과학티치, 우수연구자와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회,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등 재단의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도시에서 열리는 우수 연구성과

대중강연 '금요일에 과학티치'는 2007년 2월부터 총 1,627회 개최됐다. 매회 평균 100여명 가까이 참석해 누적 참석자 수만 16만 명을 돌파했다.

매월 2회 토요일 오전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대강당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연구자와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회'도 2011년 1월 개최 이래 총 강연 횟수 96회를 돌파했다.

지정규 한국연구재단 경영관리본부장은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유·초·중등 교육활동으로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전개해 미래 우수인적자원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4년 12월 24일 – 박희범 기자

17. 부패방지시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16

한국연구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위해 내부 규정 공개 등 공개정보를 확대 하는 등 강력한 청렴의지 실천 활동과 재단 구성원의 자발적인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범인카드 모니터링, 공무여행 예산낭비 방지·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 관행 관련 지침과 부패공직자 징계양정기준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등 청렴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해당 제도개선 권고과제는 모두 이행했다.

이와 함께 청렴주의보, 청렴신호등, 청렴마일리지 제도, 1일 1문 청렴퀴즈, 이사장과 간부직의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한 재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재단 관계자는 "신뢰에 기반한 청렴한 재단으로,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이하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이뉴스투데이 2016년 2월 23일 – 박희승 기자

18. 인문주간사업 시작 2016

‘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담다’ 인문주간 시작
일주일간 토크 콘서트, 국제포럼 등 다양한 인문학 행사 열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10월 마지막 주인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간을 ‘2016 인문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은 ‘인문주간’ 주제는 ‘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담다’로, 대학 및 연구소에 머물고 있던 인문학의 성과를 일반 시민과 공유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막식은 24일 한양대(HIT관)에서 개최된다. 가수 10cm의 문화공연이 있고, ‘희망의 인문학’을 주제로 정재찬 한양대 교수 등 3명의 인문학자가 함께하는 ‘청춘인문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인문주간 기간에는 춘천, 세종 등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인문공감콘서트’가 열린다. 전국 35개 기관(인문 도시 31개, 인문 강좌 선정 도시 4개)이 참여하며, 전국 각지에서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학 강연과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 아주대에서는 교육부와 유네스코(UNESCO), 경기도, 수원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이 개최된다. ‘희망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현대 사회가 당면해 있는 위기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극복하고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체 기조강연에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로제 폴 드루아와 인론인인 모니크 아틀랑이 공동으로 ‘인문학에서 잊혀졌던 주제,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기조강연에서는 일본 정신분석학자 가즈시계 신구(주제 :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먼 과거), 독일 철학자 칼 메르텐스(주제 : 사회적 관점-의미적 사회질서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자각으로), 조동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인문학 교육의 사명’을 주제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들려준다. 홈페이지(<http://worldhumanitiesforum.com>)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인문학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문학은 자기를 성찰하고 주변과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며, “인문주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인문학을 접하며 인문학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교육부는 인문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인문주간과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학대중화사업’ 홈페이지(<http://inmun-love.nrf.re.kr>)와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한국대학신문 2016년 10월 23일 – 이연희 기자

19. 신진연구자 생애 첫 연구 2017

미래부, '생애 첫 연구' 사업 공모..젊은 연구자에 연 3000만 원 지원
1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 도전성·창의성 주로 심사

만 39세 이하 이공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 사업 신규과제 공모가 실시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생애 첫 연구사업의 상반기 신규 과제를 1월 3일부터 3월 3일 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300억 원의 예산을 약 1,000명에게 지원하게 되며 대학 전임교원 신규 임용시기(1학기 3월, 2학기 9월)에 맞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원한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수혜를 받지 못한 연구자 가운데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을 위주로 검토·지원하게 된다. 미래부는 특히 정착연구비의 성격을 고려, 연차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료 평가를 생략해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는 에세이 형으로 중·장기 연구방향 등에 대해 5페이지 이내 연구계획서를 기술해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의 지원방법과 지원절차, 심의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미래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는 "생애 첫 연구 사업이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 유도를 위해 권역별 사업 설명회와

200여 개 이공분야 4년제 대학 내 홍보 포스터 배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7년 1월 2일 – 김혜미 기자

20. 연구재단, 국가 R&D지원 업무에 'AI' 도입 2017

연구재단, 국가 R&D지원 업무에 'AI' 도입
평가 후보자 추천 시스템 갖춰…신청 과제 적합성 향상 기대

연간 4조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지원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9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AI를 활용한 국가 R&D 연구지원 업무를 시범 추진한다. 올해 안에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후보자 추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과 알고리듬 설계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과제 평가위원 선정은 연구계획에 나타난 학술 분야에 따라 약 8만 명의 평가자 풀(Pool) 정보를 조합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 분야가 융합된 과제가 많아지고 연구 분야도 더 세분화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적합성이 높은 평가위원 추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자·연구성과·연구동향 등 빅데이터와 평가자의 인적·성과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 AI를 통해 신청 과제와 분야별 적합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평가위원 후보자를 찾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17년 4월 9일 – 남도영 기자

21.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7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119개 중 A등급 16곳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 조폐공사 A등급·국립생태원 E등급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 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 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 투자진흥공사 등 16곳(전체의 13.4%)이 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등 다수의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 관들이 C(보통)등급을 받았다. 대전소재 한국조폐공사와 충남 태안소재 한국서부발전은 A(우수)등급을 받은 반 면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은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 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119개 평 가기관 중 종합등급 A를 받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한국

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등 16곳(전체의 13.4%)이었다. B(양호)를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곳(40.4%), C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곳(31.9%)이었다.

D(미흡) 등급 이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 석유공사 등 17곳(14.3%)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E를 받았다.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A를 받았다.

한국서부발전도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대전 유성), 축산물 품질평가원(세종)도 A등급을 따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철 도시설공단은 B등급을 받았고, 한국철도 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C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C였던 국립 생태원은 E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종합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4 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 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 기관은 없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이후 S를 받은 곳은 한국전력(2009년)과 인천공항공사(2011년)뿐이다.

중도일보 2017년 6월 19일 – 이상문 기자

시무식

1987

한국학술진흥재단 시무식 / 1987. 1. 4.



2017

한국연구재단 시무식 / 2017. 1. 2.



1979

한국과학재단–일본학술진흥회 간 과학기술 양해각서 교환
/ 1979. 4. 24.



MOU

2017

한국연구재단–벨라루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 / 2017. 4. 11.



사회공헌

1985



2017



1986



체육행사

2017



전경

1977, 2005

- 한국과학재단 청사 전경 / 1977. 7. 1.
-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경 / 2005.



2017

- 한국연구재단 전경



1993

- 한국과학재단 직원 하계 수련회 / 1993. 8. 27.



워크숍

2017

-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워크숍 / 2017. 6. 8.



창립 기념식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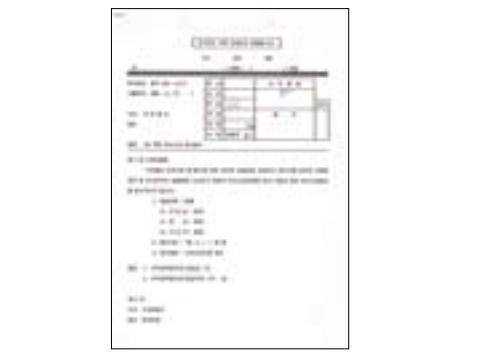


2017



과거

- 한국과학재단 공문 / 1986. 10.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문 / 1992. 1.
한국과학재단 공문 / 1995. 2.



공문

현재

- 한국연구재단 공문(일반) / 2017. 6.
한국연구재단 공문(휴가신청서) / 2017. 7.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40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김준동

편찬위원

곽민해, 김기형, 박두영, 안화용, 원재호, 이상대,
이영수, 이재방, 이지근, 정진호, 최연수, 최재동,
김한기 / 간사

감수 및 협조

강병옥, 김석호, 김종환, 김해도, 박대현, 박숙미,
박희웅, 배찬우, 이덕우, 이동훈, 이성종, 이정희,
임총규, 장효정, 조순로, 최동명, 허 정, 허정은

도움 주신 분들

(주)홍커뮤니케이션즈 / 기획·제작
김희정 / 원고 집필
전민재 / 기획·진행
송보영 / 편집 디자인
박경희 / 편집 디자인
박유리 / 편집 디자인
studio KENN / 사진 촬영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화보편

발행일 . 2017년 11월 30일

발행인 . 조무제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1544-6118 / Fax. 042-869-6777

서울청사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 Fax. 02-3460-5519

www.nrf.re.kr

기획 . 한국연구재단

제작 / 디자인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저작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저작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